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당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각 경찰서와 지서 형무소 등에 소집·구금되었다가 6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군 일대와 남해군 및 하동군 지역에서 집단 사살되었는데 그 중 정계수(丁桂水) 등 68명에 대한 희생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고성군·남해군·하동군 보도연맹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이 고성·남해·하동 경찰서 경찰서에 소집, 구금되었다가 1950년 6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군 하일면 타래고개 및 마암면 싸리재, 개천면 원동골짜기, 남해군 북곡 저수지 근처, 강진만 해상 그리고 광양시 매티재 외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2.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8명이다. 신청인 중 '확인'된 사람은 정계수(丁桂水) 등 64명이다. 신청인 중 '추정'된 사람은 최정섭(崔丁燮) 등 2명이다.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김종원(金宗元) 등 2명이다.

3. 희생자들은 고성군·남해군·하동군 지역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다.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일부 희생자의 좌익활동 전력은 확인되었으나 상당수는 좌익 사상과 무관한 사람들로 20~30대가 75%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농업 종사자들이었다.

4. 가해자는 경남경찰국 소속의 고성·남해·하동경찰서 경찰과 육군 제7사단 제3연대 및 의용경찰대로 확인되었다. 가해 군경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등 전언통신문을 하달받아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를 구금·사살하였다.

5. 당시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나 이적죄,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제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

제 6 권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진술이나 문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6.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에 대한 가해 책임은 경남 경찰국 소속 고성 남해 하동 각 경찰서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나 지휘·명령 권한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할 국가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된다.

7. 이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위반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8.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수정 및 등재, 군경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전 문]

【사 건】 다-440호 외 64건,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신청인】 정해룡 외 64명

【결정일】 2009. 11. 17.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서 접수와 처리

정해룡 외 64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초기 고성군·남해군·하동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건수는 65건으로 진실규명 대상자는 69명이었다.

신청서 접수 상황은<표1>과 같다.

<표 1>신청서 접수 현황

번호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신청인 과 관계	당시 주거지	
1	2005.12.26.	440	정해룡 (丁海龍)	정계수 (丁桂水)	남	46	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무학동 415번지	
2	2006.3.8.	2249	강정명 (姜政明)	강태주 (姜太周)	남	46	백부	경남 고성군 영현면 봉발리 380번지	
3	2006.8.17.	4768	오식완 (吳寔浣)	오만수 (吳萬壽)	남	41	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동 124번지	
4	2006.10.12.	5623	박서욱 (朴瑞煜)	박상호 (朴相灝)	남	38	부	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308번지	
5	2006.10.19.	6092	유유길 (劉有吉)	유원식 (劉源植)	남	30	부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299번지	
6	2006.11.22.	7208	심경보 (沈京浦)	심재우 (沈載祐)	남	23	삼촌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77번지	
7	2006.11.22.	7209	이두영 (李斗榮)	이한문 (李漢文)	남	25	형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326번지	
8	2006.11.24.	7707	이문형 (李文亨)	이문달 (李文達)	남	27	형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7번지	
9	2006.11.30.	8729	박대원 (朴大元)	박건석 (朴健碩)	남	26	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274번지	
10	2006.11.30.	8984	송원수 (宋沅秀)	송경만 (宋敬萬)	남	29	부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207번지	
11	2006.11.30.	8985	김원환 (金元煥)	김동개 (金東介)	남	29	부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464번지	
12	2006.11.30.	9807	이대봉 (李大鳳)	이화봉 (李華鳳)	남	25	형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29번지	
13	2006.11.30.	10204	박명남 (朴命南)	박상효 (朴相孝)	남	36	부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694번지	
14	2006.11.30.	10330	김이순 (金二順)	강대학 (姜大鶴)	남	27	시숙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326번지	
15	2006.11.30.	10334	허판석 (許判石)	허우몽 (許又夢)	남	26	부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1301번지	
16	2006.11.30.	10335	최용판 (崔龍判)	최광림 (崔光林)	남	27	재종형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72번지	
17	2006.11.30.	10337	장재수 (張在守)	박공수 (朴功璿)	남	39	시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277번지	

제 6 권

번호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신청인과 관계		당시 주거지
18	2006.2.3.	1013	정추포 (鄭秋布)	정추호 (鄭秋昊)	남	28	형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10번지	
19	2006.2.27.	1925	김우선 (金又善)	문정두 (文正斗)	남	23	사촌 시동생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311번지	
20	2006.2.27.	1926	김봉호 (金鳳鎬)	김철한 (金鐵漢)	남	18	숙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19번지	
21	2006.2.27.	1927	김재수 (金在求)	김재식 (金在植)	남	19	동생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39번지	
22	2006.2.27.	1928	한향순 (韓香順)	박상윤 (朴祥潤)	남	21	시숙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32번지	
23	2006.2.27	1929	한덕아	김상윤 (金尙閏)	남	24	시숙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87번지	
24	2006.6.30.	4088	홍원표 (洪元杓)	홍순영 (洪淳永)	남	28	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58번지	
25	2006.11.17.	6970	류홍열 (柳洪悅)	류홍섭 (柳洪涉)	남	29	형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973번지	
26	2006.11.29.	8181	정금연 (鄭錦連)	정창후 (鄭昌厚)	남	29	부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99번지	
27	2005.12.27.	365	권영태 (權永太)	권황석 (權黃石)	남	42	부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67-2	
28	2006.1.17.	916	강현규 (姜顯圭)	강용석 (姜榕碩)	남	31	형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022번지	7613호와 동일사건
29	2006.3.24.	2645	한태장 (韓台藏)	한수성 (韓洙聲)	남	34	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199-9번지	
30	2006.4.26.	3209	이용진 (李龍振)	이용덕 (李龍德)	남	20	형	경남 하동군 황천면 학리 516번지	
31	2006.4.27.	3234	정양옥 (鄭良玉)	정한철 (鄭漢喆)	남	21	오빠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642번지	
32	2006.5.18.	3235	정영길 (鄭榮吉)	정권수 (鄭權壽)	남	40	부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00번지	
33	2006.5.18.	3555	김종화 (金鍾和)	김윤배 (金潤培)	남	33	부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35번지	
34	2006.5.24.	3666	김길성 (金吉成)	김재곤 (金在坤)	남	40	부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32번지	
35	2006.6.7.	3847	박종진 (朴鐘振)	박일봉 (朴一琫)	남	36	부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821번지	
36	2006.6.20.	3984	이주택 (李周澤)	이필택 (李畢澤)	남	24	형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05번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번호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신청인과 관계		당시 주거지
37	2006.6.23.	4022	조영래 (趙永來)	조갑제 (趙甲濟)	남	26	숙부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216번지의 1	
38	2006.8.2.	4626	최창래 (崔昌來)	최규호 (崔圭皓)	남	26	부	경남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574번지	
39	2006.10.16.	5685	박정미 (朴正美)	박학수 (朴學洙)	남	41	부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431번지	
40	2006.10.23.	6162	유경열 (柳景烈)	유철우 (柳哲宇)	남	56	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도장골 1123번지	
				유용덕 (柳龍德)	남	29	형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도장골 1123번지	
41	2006.10.23.	6163	강대섭 (姜大燮)	강응석 (姜應錫)	남	46	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36번지	
				강대엽 (姜大擘)	남	26	재종형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36번지	
42	2006.10.23.	6164	김용채 (金龍菜)	강대운 (姜大允)	남	27	외숙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71번지	
43	2006.10.23.	6165	전기윤 (全基潤)	황용구 (黃龍球)	남	32	자형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53번지	
44	2006.10.23.	6166	황이연 (黃二連)	황용덕 (黃龍德)	남	34	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53번지	
45	2006.10.23.	6167	정회근 (鄭會根)	최정섭 (崔丁燮)	남	27	외숙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13번지	
46	2006.10.23.	6169	강부중 (姜富中)	강대익 (姜大益)	남	21	숙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84번지	
47	2006.10.23.	6170	강대진 (姜大振)	강갑수 (姜甲秀)	남	26	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40번지	
48	2006.10.23.	6171	유춘수 (柳春洙)	유정우 (柳正宇)	남	59	조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36번지	6162호 유경열과 당숙관계
				유철우 (柳哲宇)	남	56	조숙부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도장골 1123	
49	2006.10.23.	6173	박인권 (朴仁權)	강원수 (姜元秀)	남	29	처남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38-1번지	
50	2006.11.22.	7306	최규삼 (崔圭三)	최수열 (崔穗烈)	남	34	숙부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572번지	
				최홍열 (崔鴻烈)	남	26	숙부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572번지	
51	2006.11.23.	7486	김윤애 (金潤愛)	김락환 (金洛煥)	남	31	부	경남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142번지	

제 6 권

번호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당시 연령	신청인 과 관계	당시 주거지	
52	2006.11.24.	7613	강종철 (姜鐘喆)	강용석 (姜榕碩)	남	31	부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 당리 1022번지	916호 동일사건
53	2006.11.22.	7635	이병관 (李炳寬)	이상백 (李尙白)	남	34	부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 이리 1010번지	
54	2006.11.24.	7692	권재수 (權載守)	권재우 (權載于)	남	26	형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 동리 441-2번지	
55	2006.11.24.	7695	송근홍 (宋根洪)	송삼수 (宋三洙)	남	43	부	경남 하동군 황천면 남 산리 697-1번지	
56	2006.11.30.	8322	유홍갑 (劉洪甲)	유홍권 (劉洪權)	남	32	형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58번지	
57	2006.11.30.	8323	유일순 (劉日順)	유우윤 (劉又允)	남	45	부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24번지	
58	2006.11.30.	8411	장호수 (張浩洙)	장을석 (張乙錫)	남	45	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 곡리 331번지	
59	2006.11.30.	8415	장호조 (張浩祚)	장두석 (張斗錫)	남	32	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 곡리 341번지	
60	2006.11.30.	9374	이복달 (李福達)	전중영 (全中榮)	남	22	남편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가 덕리 650번지	
61	2006.11.30.	9509	구남경 (具南景)	구봉섭 (具鳳攝)	남	24	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 정리 802번지	
62	2006.11.30.	9578	여강자 (余江子)	여준규 (余俊奎)	남	37	부	경남 하동군 양보면 박 달리 509번지	
63	2006.11.30.	9580	박종식 (朴宗植)	박동원 (朴東源)	남	35	부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68번지	
64	2006.11.30.	9582	이성수	박경만 (朴敬萬)	남	35	자형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 절리 840번지	
65	2006.11.30.	10300	남연이 (南連伊)	유기석 (劉起石)	남	34	남편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71번지	

나. 신청 요지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초순경 고성·남해·하동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國民保導聯盟員 : 이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각 경찰서와 관할 지서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한 후, 고성 하일면 타래고개 및 남해 북곡저수지,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외 불상지에서 집단 사살되었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보

도연맹 사건이 국가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서 기본법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10월 10일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3. 조사방법

가. 자료 조사

1) 경찰자료

- 『신원조사서카드』¹⁾ 고성경찰서, 1977.
- 『사실조사서』, 남해경찰서, 1980.

2) 신문자료

- 민주중보 1949년 11월 9일자 : 경남 국민보도연맹 지부결성현황
- 민주중보 1949년 11월 12일자 : 경남 국민보도연맹 임시발기인회 개최
- 민주중보 1949년 11월 15일자 : 경남 국민보도연맹 발기대회 개최
- 부산일보 1949년 11월 12일자 : 경남 국민보도연맹 선포대회 개최
- 부산일보 1949년 12월 13일자 : 보련 군 지부결성 남해
- 부산일보 1950년 1월 12일자 : 보련 고성연맹 특별합숙훈련
- 부산일보 1950년 3월 10일자 : 보련 국민사상 선양대회 성황(고성)
-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 경남지역 국민보도연맹 자수자현황

1) 고성경찰서에 신원조사서가 있는지 여부를 요청 하였으나 기록 존치 여부 등을 확인해 본 바 해당기록이 전무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어떠한 기록 자료도 찾을 수 없다는 고성경찰서의 회신을 받았다. 고성경찰서, 『자료열람 및 복사 협조요청 관련 회신』, 2009.9.14.

제 6 권

-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 고성지역 국민보도연맹 결성
- 자유민보 1949년 11월 24일자 : 자수자는 전적 포섭 의심 말고 하로 속히 도라오라(하동)
- 자유민보 1949년 11월 25일자 : 고성경찰서 자수 권고 좌담회
- 부산일보 1960년 5월 19일자 : 하동 옥중서 700명 학살
- 부산일보 1960년 5월 23일자 : 하동에서도 참사
-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 고성군 양민 학살
- 국제신보 1960년 6월 21일자 : 하동군 옥중면 학살

3) 피해자현황 기초사실조사표

진실화해위원회는 각 시·군에 의뢰하여 2008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피해자현황 기초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피해자현황 기초사실조사는 관련 문헌자료 수집과 피해자 증언채록, 사진촬영, 현장 확인 등에 초점을 두었다. 피해자현황 기초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성 2명, 남해 13명, 하동 22명 등 총37명이었다.²⁾ 피해자현황 기초사실조사는 해방직후 이 지역 정치상황과 피해현황, 피해규모를 확인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기타자료

가) 군·경찰 자료

- 『한국헌병사』, 헌병사령부, 1952.
- 『한국경찰사』, 내무부 치안국, 1973.
- 『부산경찰사』, 부산지방경찰청, 2000.
- 『건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6·25전쟁사Ⅰ전쟁의 원인과 배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

각 군	피해자 현황
고성군	박한욱, 최병욱
남해군	김석도, 장경모, 문정두, 김홍식, 심재천, 정추호, 정추한, 김한호, 김재호, 황상훈, 손권기, 이남권, 무명씨
하동군	유홍권, 정수현, 강대홍, 강성길, 염희섭, 염두용, 심두섭, 이명조, 김재선, 조상석, 정규범, 정한범, 정대범, 박또남, 정장호, 권항석, 최생규, 문계문, 최두리, 하상현, 조시제, 양재인

이 중 문정두(다-1925호), 정추호(다-1013호), 유홍권(다-8322호), 권항석(다-365호)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희생자이다.

- 『경남 경우 45년사』, 재향경우회 경남도지부, 1993.

나) 향토지

- 『고성군지』, 고성군지편찬위원회, 1995.
- 『남해군지』, 남해군지편찬위원회, 1994.
- 『하동군지』, 하동군지편찬위원회, 2003.
- 『창선면지』, 창선면지편찬위원회, 2004.
- 『이동면지』, 이동면지편찬위원회, 2005.
- 『악양면지』, 악양면지편찬위원회, 2004.

다) 단행본 및 논문

-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동원, 그리고 학살로」, 『역사연구』제14호, 2005.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자료」, 『제노사이드 연구』 창간호, 2007.
- 전갑생,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경계』56, 2005.
- 정병준,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제54호, 2005.

나. 진술 조사

1) 신청인 조사

신청인 조사는 신청인 65명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면담조사, 전화조사 등이다. 신청인 조사는 희생자의 신원과 특성, 연행·희생과정에 대해 목격자 내용, 희생이유 및 가해자 측에 대해 추정된 내용, 시신수습 과정, 그리고 연좌제 피해 등을 주로 조사하였다. 신청인 조사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신청인 조사 내용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당시연령)	진술일자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내용	비고
1	440	정해룡 (2)	2008.11.11.	고성군청	진술 조서	부 정계수는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1950년 7월 26일 고성경찰서에 끌려가 춘암리 타래 고개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을 수습함.	전문
2	2249	강정명 (9)	2008.4.2.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백부 강태주는 1950년 7월 31일북평리 개천 변에서 고성 경찰서 경찰에 의해 총살당하였고 시신을 수습함.	전문
3	4768	오식완 (12)	2008.8.27.	마산 시청	진술 조서	부 오만수는 보도연맹 관련하여1950년 7월말 경 고성경찰서에 연행되어 개천면 신리 싸리 고개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을 수습하였음.	목격
4	5623	박서옥 (11)	2008.6.19.	사천 시청	진술 조서	부 박상호는 1950년 7월 25일 보도연맹을 이유로 고성 경찰서에 연행되어 하이면 월흥리 땅고개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목격
5	6092	유유길 (9)	2008.4.30	부산 남구청	진술 조서	부 유원식은 보도연맹으로 누명을 씌워 1950년 7월 4일 고성경찰서에 연행되어 하이면 학림리 임포마을 야산에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6	7208	심경보 (미출생)	2008.2.28	자택	녹취서	숙부 심재우는 1950년 7월 보도연맹 가입과 관련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마암면 싸리재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7	7209	이두영 (19)	2009.6.24	고성군청	진술 조서	형 이한문은 1950년 7월 부역하러 나오라고 하여 갱이를 갖고 나간 후 하이면 타래고개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목격
8	7707	이문형 (17)	2008.10.14	진주시청	진술 조서	형 이문달은 보도연맹을 이유로 1950년 7월 28일 고성경찰서로 출두되어 영현면 싸리재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목격
9	8729	박대원 (5)	2008.11.11.	고성군청	진술 조서	부 박건석은 보도연맹을 이유로 1950년 7월 28일 고성경찰서로 끌려가 개천면 옥천사 부근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10	8984	송원수 (2)	2008.6.3.	창원시청	진술 조서	부 송경만은 보도연맹원과 함께 1950년 7월 중순경 고성경찰서로 불려가 고성군 하이면 타래들에서 사살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11	8985	김원환 (2)	2008.3.13.	창원시청	진술 조서	부 김동개는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 관련하여 고성경찰서에 불려가 북평리 원동마을 골짜기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12	9807	이대봉 (11)	2008.7.30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형 이화봉은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1950년 7월말경 고성경찰서에 끌려가 행방불명됨.	목격
13	10204	박명남 (14)	2008.11.11.	고성군청	진술 조서	부 박상호는 1950년 7월 고성경찰서에 끌려가 하이면 타래골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목격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당시 연령)	진술일자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내용	비고
14	10330	김이순 (18)	2008.11.11.	고성군청	진술 조서	시숙 강대학은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된 후 1950년 7월 25일 고성경찰서에 연행되어 하 일면 동사이골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수습 하였음.	목격
15	10334	허판석 (5)	2008.11.5.	자택	통화 조서	부 허우몽은 1950년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고 성경찰서로 끌려가 1950년 7월 26일 하일면 학동골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16	10335	최용판 (5)	2008.11.11.	고성군청	진술 조서	재종형 최광림은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 맹과 관련하여 개천면 원동골짜기에서 집단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17	10337	장재수 (9)	2008.11.11.	고성군청	진술 조서	시부 박공수는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 과 관련하여 개천면 옥천사 부근에서 집단 총 살되었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18	1013	정추포 (14)	2008.6.18.	자택	진술 조서	형 정추호는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1950년 7 월 27일 복곡 저수지 근처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목격
19	1925	김우선 (19)	2008.6.18.	남해 상주면 사무소	진술 조서	사촌 시동생 문정두는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1950년 7월 27일 복곡 저수지에서 총살당하 였음.	목격
20	1926	김봉호 (미출생)	2008.6.18.	남해 상주면 사무소	진술 조서	숙부 김철한은 보도연맹혐의로 7월 24일 경 찰에 끌려가 27일 복곡 저수지 근처에서 총살 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21	1927	김재수 (23)	2006.2.27.	남해군	신청서	동생 김재식은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7월 경찰 에 끌려가 27일 복곡 저수지 근처에서 총살당 하였고 시신은 수습함.	조사 거부 3)
22	1928	한향순 (12)	2008.6.18.	남해 상주면 사무소	진술 조서	시숙 박상윤은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1950년 7월 24일 경찰에 끌려가 복곡 저수지 근처에 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함.	전문
23	1929	한덕아 (13)	2008.6.18.	남해 상주면 사무소	진술 조서	시숙 김상윤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24일 경찰에 끌려가 복곡 근처에서 총살당하 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24	4088	홍원표 (5)	2008.12.1.	자택	통화 조서	부 홍순영은 1950년 7월 25일 경찰에 연행되 어 27일 복골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 하였음.	전문
25	6970	류홍열 (8)	2009.2.27.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형 류홍섭은 보도연맹에 관련하여 남해경찰 서로 출두하여 총살당한 후 1950년 7월 20일 강진앞바다에 유기되었음.	목격
26	8181	정금연 (1)	2008.11.19	자택	통화 조서	부 정창후는 마을이장으로 보도연맹 관련해 1950년 7월 27일 이동면 복곡에서 총살당하 였고 시신은 찾았음.	전문

제 6 권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당시 연령)	진술일자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내용	비고
27	365	권영태 (6)	2008.4.29	부산 금정구청	진술 조서	부 권황석은 7월 23일경 보도연맹 관련해 양보지서의 순경과 대한청년단 단원이 와서 연행해가서 행방불명됨.	전문
28	916	강현규 (13)	2008.8.27.	마산시청	진술 조서	형 강용석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교육받던 중 1950년 7월 15일경 양보지서로 소집되어가 행방불명됨.	목격
29	2645	한태장 (9)	2008.7.1.	진주시청	진술 조서	부 한수성은 1950년 7월 15일경 보도연맹가입 한지 3일 만에 옥종지서로 끌려가 행방불명됨.	전문
30	3209	이용진 (8)	2008.6.12.	부산 남구청	진술 조서	형 이용덕은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 관련하여 마을에서 총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던 신재호, 정정석 등에게 연행되어 하동경찰서로 간 후 행방불명됨.	전문
31	3234	정양옥 (17)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오빠 정한철은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 관련하여 마을에서 민간인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정정석 등에게 연행되어 하동경찰서로 간 후 행방불명됨	목격
32	3235	정영길 (8)	2009.6.4.	자택	진술 조서	부 정권수는 보도연맹으로 1950년 7월 중순경 하동경찰서로 끌려가 행방불명됨.	전문
33	3555	김종화 (3)	2008.4.17.	거창군청	진술 조서	부 김윤배는 7월 20일 보도연맹으로 인하여 악양지서에서 집결통보를 받고 나간 뒤 하동경찰서로 간 후 행방불명됨	전문
34	3666	김길성 (3)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부 김재곤은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1950년 7월 15일경 하동경찰서로 연행되어 감금된 후 행방불명됨.	전문
35	3847	박종진 (10)	2008.4.29	부산 금정구청	진술 조서	부 박일봉은 1950년 6월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되어 하동경찰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목격
36	3984	이주택 (6)	2008.8.28	마산시청	진술 조서	형 이필택은 19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되어 하동지서 순경의 소집으로 하동경찰서에 감금 후 트럭에 태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됨.	전문
37	4022	조영래(미출생)	2008.4.30	부산 금정구청	진술 조서	숙부 조갑제는 가종국교 교사로 재직 중 보도연맹으로 인해 1950년 6월 말 옥종지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전문
38	4626	최창래 (미출생)	2009.2.5.	울산시청	진술 조서	부 최규호는 위태국교 교사로 재직중 1950년 7월 보도연맹으로 인하여 하동군청으로 연락을 받고 행방불명되었음.	전문
39	5685	박정미 (12)	2008.5.20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서	부 박학수는 북천면 보도연맹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1950년 6.25전쟁 후 북천지에서 트럭으로 태워 하동읍으로 신고 간 후 행방불명됨.	전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당시 연령)	진술일자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내용	비고
40	6162	유경열 (12)	2008.11.12	자택	진술 조서	부 유철우와 형 유용덕은 1950년 6.25전쟁 직후 경찰이 와서 하동경찰서로 끌고간 후 매 티재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목격
41	6163	강대섭 (12)	2008.11.4.	자택	진술 조서	부 강응석과 재종형 강대엽은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을 이유로 하동지사로 소환된 뒤 행방불명됨.	목격
42	6164	김용채 (미출생)	2008.11.14	자택	진술 조서	외숙부 강대윤은 1950년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을 이유로 하동지사로 소환된 뒤 행방불명됨.	전문
43	6165	전기윤 (8)	2008.11.13	하동군청	진술 조서	자형 황용구는 1950년 7월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매티재로 끌려가 총살당함.	전문
44	6166	황이연 (12)	2008.11.13	하동군청	진술 조서	부 황용덕은 1950년 7월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매티재로 끌려가 총살당함.	목격
45	6167	정희근 (미출생)	2009.7.15.	자택	진술 조서	외숙부 최정섭은 1950년 7월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매티재로 끌려가 총살당함.	전문
46	6169	강부중 (미출생)	2008.11.13	하동군청	진술 조서	숙부 강대익은 보도연맹가입을 이유로 1950년 7월 매티재로 끌려가 총살당함	전문
47	6170	강대진 (6)	2008.11.14	자택	진술 조서	부 강갑수는 1950년 7월 보도연맹가입을 이유로 적량지사로 끌려간 후 매티재에서 총살 당함.	전문
48	6171	유춘수 (미출생)	2009.3.10.	자택	통화 조서	조부 유정우 조숙부 유철우는 1950년 6.25전쟁 직후 경찰이 와서 하동경찰서로 끌고 간 후 매티재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전문
49	6173	박인권 (21)	2008.6.16.	자택	진술 조서	처남 강원수는 1950년 6.25전쟁 직후 경찰이 와서 하동경찰서로 끌려간 후 매티재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전문
50	7306	최규삼 (1)	2008.5.15.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숙부 최수열과 최흥렬은 보도연맹으로 인하여 1950년 전쟁발발 후 북천지사로 연행되어 행방불명됨.	전문
51	7486	김윤애 (1)	2008.7.24.	김해시청	진술 조서	부 김락환은 1950년 7월 19일경 보도연맹 가입으로 인해 북천면사무소로 나간 후 트럭에 실려 그날 밤 진주에서 의령 넘어가는 고개에서 전부 사살되었음.	전문
52	7613	강종철 (5)	2008.5.1.	부산 금정구청	진술 조서	부 강용석은 19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으로 인해 하동경찰서 소집 명령을 받고 출두한 후 백운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음.	전문
53	7630	이병관 (5)	2008.7.1.	진주시청	진술 조서	부 이상백은 보도연맹 혐의로 1950년 7월 중순 경찰에 연행되어 하동군 황천면에서 총살 당함.	전문

제 6 권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당시 연령)	진술일자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내용	비고
54	7692	권재수 (13)	2008.7.1.	진주시청	진술 조서	형 권재우는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으로 인해 하동경찰서에 유치중 매티재(전남 광양군 진월면) 골짜기서 총살당함.	목격
55	7695	송근홍 (16)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부 송삼수는 보도연맹원으로 1950년 전쟁 발발 2주 후에 황천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하동경찰서로 간 후 진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산청에서 총살당하였음.	목격
56	8322	유홍갑 (26)	2008.11.13	하동군청	진술 조서	형 유홍권은 보도연맹원으로 전쟁난 후 1950년 7월 19일 하동경찰서로 소집되어 행방불명됨.	목격
57	8323	유일순 (9)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부 유우윤은 보도연맹건으로 인해 매계리 동네 사람들 3~4명과 같이 악양지서로 1950년 7월 20일경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행방불명됨.	전문
58	8411	장호수 (5)	2008. 7.1.	진주시청	진술 조서	부 장을석은 1950년 7월 옥종지서 경찰이 찾아와 보도연맹건으로 연행하여 하동경찰서에 구금된 후 행방불명됨.	전문
59	8415	장호조 (5)	2008.9.9.	부산시청	진술 조서	부 장두석은 보도연맹가입을 이유로 1950년 7월 25일경 옥종지서로 소집통고를 받아 출두하였다가 트럭에 실려간 후 행방불명됨.	전문
60	9374	이복달 (21)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남편 전중영은 7월 15일 하동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의해 출석하였다가 7월 17일 트럭에 실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목격
61	9509	구남경 (2)	2008.12.10	부산 남구청	진술 조서	어머니를 통해 부 구봉섭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1950년 7월 20일경 하동경찰서로 끌려가 정랑면 세재 고개에서 총살당하였다고 들었음.	전문
62	9578	여강자 (6)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부 여준규는 1950년 7월 24일 면에서 회의있다고 불려나가 트럭에 태워진 후 매티재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음.	전문
63	9580	박종식 (15)	2008.6.17.	하동군청	진술 조서	부 박동원은 1950년 7월 악양지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됨.	목격
64	9582	이성수 (15)	2006.11.30	하동군청	신청서	지형 박경만은 1950년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적량지서로 끌려 간 후 행방불명됨.	신청인 사망 4)
65	10300	남연이 (30)	2008.11.13	하동군청	통화 조서	남편 유기식은 1950년 7월 20일 보도연맹 관련하여 악양지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됨.	목격
66	미신청	김경자 (13)	2009.7.22.	진실화해 위원회	진술 조서	부친 김중원은 1950년 음력 6월 초하루 보도연맹 관련하여 체포소식을 접하고 통영 의창막 사랑도로 피신하였으나 음력 7월 1일 최석범 CIC 경찰 등에 의해 연행된 후 3주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목격

연 번	사건 번호	신청인 (당시 연령)	진술일자	진술 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내용	비고
67	미신청	김명남 (10)	2008.6.12.	부산 남구청	진술 조서	형 김충원은 1950년 음력 6월 12일 남해경찰서로 끌려가 이동면 신전리 복곡 근처에서 사살되었고 시신은 찾았음.	목격

2)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조사와 함께 경남 고성·남해·하동지역 생존 보도연맹원, 보도연맹 가입 관련 목격자, 가해 관련 주요 참고인들을 조사하였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사건에 대해 목격, 전문(傳聞) 사항, 가해자 측에 관한 정보, 우익단체의 활동, 보도연맹 조직과 체계 등을 주로 파악하였다.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일반 참고인 조사 내용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강수식 (17)	사건 경험자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009.6.2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정계수(440호)의 이웃주민. 당시 정계수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마을 이장을 보고 있었음. 고성읍 송학리에는 300여 가구가 살고 있었고 고성읍 지서와는 1km 정도 근접해 있었음.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당시 보도연맹 간부였던 오만수, 권오관, 김종원 등과 친분이 있었음. 1950년 음력 6월 연행되어 음력 6월 13일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독자였던 피해자는 '도망갈 여력도 없고 나 하나 죽더라도 자식들은 살리겠다.'고 도망을 가지 않았다고 함.
2	김봉례 (32)	유족	마산시 양덕동	2009.6.2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오만수(4768호)의 처. 피해자 오만수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음. 당시에 오만수는 진주중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곡물 검사 일을 하고 있었음. 그리고 경남 보도연맹 간사장 역할을 맡았음. 당시 고성에서는 1949년 9월쯤 보도연맹이 결성되었고 김종원, 정계수 등이 간부로 있었음. 보도연맹원은 100여 명 정도 있었음.

- 3) 진실규명신청서로 대체한다.
- 4) 진실규명신청서로 대체한다.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2	김봉례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 검거 소식을 듣고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남산에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잡아갔음. • 고성경찰서에 2~3일 정도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고 진술인이 사식을 넣고 했음. • 1950년 7월 31일(음력 6.17.) 싸리고개에서 처형되었음. 처형당한 장소를 소문을 듣고 가서 시신이 부패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으나 금니를 보고 시신을 수습했음.
3	박상진 (20)	사건 경험자	고성군 영현면 봉발리	2009.6.2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강태주(2249호)와 같은 마을 주민. • 강태주는 당시 영현면 면장으로 있었음. 가입여부는 모르겠으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었음. • 강태주의 형제가 3명 있었는데 월북하였고 이어서 강태주가 끌려갔음. • 강태주의 여동생의 말에 의하면 강태주는 7월 초순 저녁 먹고 10시 정도 되었는데 지서에서 오라는 소환명령을 받고 출두한 후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음. • 1주일 정도 지난 후 피해자의 여동생이 시신을 찾아서 매장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 • 개천면 얼음골짜기 야산에서 여동생이 인부 몇 명과 같이 가서 시신을 찾았는데 당시 거기에 시체가 아주 많아서 뒤져가면서 찾았다고 함. 시신이 많이 부패하고 냄새로 인해 부락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묘를 써서 안장하였음.
4	이판선 (12)	유족	고성군 대가면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한문(7209호)의 동생으로 같이 살고 있었음. • 1950년 7월 26일에 반장인지 구장인지가 와서 팽이가 지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연락이 없었음. • 며칠 후 소문에 어디 어디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소릴 듣고 통영 가는 원문고개에 갔는데 시신이 없었고 다음에 찾아가던 곳이 하일면 타래고개로 거기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내가 시신을 찾아 왔음.
5	이두연 (26)	사건 경험자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한문(7209호)과 같은 마을주민. 당시 시집와서 한동네에 살고 있었고 현재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최고령자. • 음력 6월에 반장인지 구장인지가 와서 팽이가 지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 시신을 목격하였는데 핏물이 줄줄 새어나왔음.
6	송정남 (15)	유족	경남 진해시 경화동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송경만(8984호)의 여동생. • 송경만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음. • 송경만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데 당시 마을 이장이 영오면 지서에 가보라고 해서 지서로 갔고 영오면 사람 8~9명을 트럭에 싣고 고성경찰서로 가는 것을 진술인이 직접 목격함 • 1950년 음력 6월초에 고성경찰서에 연행되어 음력 6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6						<p>월 12일 하일면 타래들 골짜기에서 처형되었다고 당시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최마구’(현재 사망)로부터 전해 들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과 이웃이 처형 장소에 가서 피해자의 옷가지를 보고 확인한 후 시신을 수습함.
7	이종태 (23)	사건 경험자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2009.6.2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화봉(9807호)과 같은 마을 주민. • 진술인은 고성읍에서 의사생활 하던 ‘권오관’으로부터 보도연맹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화봉은 가입하였음. 자신의 기억으로 보도연맹이 생기고 1년 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앎. • 이화봉이 경찰이 와서 잡아갔다는 이야기 듣고 진술인은 경찰서에 면회를 가니 면회가 안 되었음. • 피해자 등 몇 명을 트럭에 싣고 묶인 채 이동했다는 마을 목격자의 이야기 들었음. 이후 싸리재로 시신 찾으러 갔으나 없었고 경찰서에선 모른다고 하였음. • 당시 같이 활동했던 울평리의 ‘장해룡’이라는 보도연맹원이 있었으나 미리 도망쳐서 피해를 입지 않았음.
8	김보연 (23)	사건 경험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009.6.2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박상호(5623호)와 같은 마을 주민. • 박상호는 당시 하이면 석지리 양촌부락 출신으로 진술인의 주소지와 겹쳐서 한 시간 거리에 있었음. • 피해자가 손이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이동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1950년 7월말 타래고개에 소 먹이러 갔다가 박상호를 비롯한 시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음. • 그전에 찾아간 사람들도 있어서 자신이 목격할 당시엔 20여구 정도 되었음. 오촌 숙부 등 가족이 박상호 시신을 수습하였음.
9	송상덕 (14)	사건 경험자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문달(7707호)과 같은 마을 주민. 이문달은 당시 양산통도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성 공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음. • 피해자의 친구가 좌익 활동을 해서 경찰에 잡혔는데 피해자 이문달의 신발을 신고 있던 것이 알려져 통영에서 재판을 받았음. 그때 보도연맹을 관리하던 ‘이중수’가 가입하라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함. • 보도연맹 모임을 끝내고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1950년 7월 28일 연행됨. • 고성경찰서에서는 3~4일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1950년 8월 1일경 영현면 싸리재에서 사살되었음. • 피해자의 친구 ‘박상희’라는 사람이 이문달이 트럭에 싣려 가는 것을 목격해 사망일자과 장소를 알게 됨. • 중앙에서 내려온 특무대에서 피해자를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10	이상혁 (24)	사건 경험자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박상호(10204호)와 한 마을 주민. 박상호는 월흥리 한 부락에 살고 있다가 상림면 막림리로 이사 갔음. 1950년 음력 6월 중순경 월흥리 타래고개 쪽에서 새벽에 총소리가 1시간 정도 났었음. 올라가보니 사람들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고 그 중 박상호 시신을 직접 목격하였음. 피해자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에게 믿보였다고 생각함. 좌우익이 대립이 있었고 자기편이 아니면 모함을 했기에 이에 걸려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음.
11	최삼순 (22)	유족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허우몽(10334호)의 처. 허우몽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었음. 당시 거류면에는 1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고 거류지서와는 4km정도 근접해 있었음. 경찰들이 1950년 7월 하순에 거류지서에서 몇 명을 모아 트럭에 싣고 고성경찰서로 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진술인이 밥을 해서 경찰서에 여러 번 갔었음. 1950년 7월 27일 하일면 오방골짜기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친척과 진술인이 처형 장소에 가서 시신을 수습함. 족보에 사망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
12	최광림 (15)	사건 경험자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최광림(10335호)과 오서리 같은 마을에 살고 동네에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었음. 최광림은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학력은 무학으로 얇. 해방 후 좌익 성향의 '정낙영'(30대), '황인환'(30대) 등 몇몇 사람이 주동하니 같이 휩쓸려서 사망한 것 같음. 1950년 7월 27~28일경 집에 있는 최광림을 지서에서 나온 경찰이 트럭에 싣고 고성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을 어머니가 목격하고 집에 와서 진술인에게 이야기 하여 길가에 나가보니 몇 대의 트럭이 있었고 뒤에 사람들이 실려 나가고 있었음. 고성경찰서에서 하룻밤 구금한 뒤 분류해서 개천면 원동골짜기로 끌려가 사살 되었는데 오서리 출신은 최대림, 최영갑, 최말림, 최광림, 송경만(8984호) 등 10여 명 정도였음. 당시 잡혀간 사람 중 한명은 경찰에게 태극문신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여 풀려났음. 연행 된지 2~3일 후 원동골짜기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피살자들의 신발이 논에도 있었는데 원동골짜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골짜기로 피해자들이 안 올라가려고 하니깐 경찰이 몽둥이로 패가면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함.
13	심재화 (10)	사건 경험자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2009.6.2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심재우(7208호)와 연지리 평동 같은 동네에 살았음. 진술인은 현재 연지리 이장을 맡고 있음. 보도연맹 가입여부는 모르나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13	심재화 (10)	사건 경험자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2009.6.25.	면담 조사	<p>‘억울한 사람들이 죄 없이 죽었다.’고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청년단’이라는 우익 청년단체가 있었는데 누런색 의복을 착용했음. ‘민족청년단’은 좌익 청년단체로 푸른 색깔의 옷을 입었음. ‘대동청년단’은 양민을 많이 구타하고 삼산면의 대장이 사람 많이 패는 자로 악명이 높았음. ‘대한청년단’은 대창도 지니고 있었고 호루라기로 신호를 보내곤 했는데 밤중에 그 소릴 들으면 섬뜩했음. • 고성은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이 많으며 무조건 잡으러 다녀서 도망친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었음. 잡아갈 때도 새벽에 잡아갔음. • 당시 연지리 평동에선 심재우 외에 ‘전간조’가 연행되어 사살되었음.
14	황경운 (28)	고성 전 문화원장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009.6.2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계수(440호)와 같은 마을 주민. 해방 전 일본에서 유학 중 ‘아소타로’ 수상의 조부가 탄광사업을 경영하였는데 마산 적판 광업소 수천명이 징집당해 일본으로 왔을 때 자신의 기지로 징집된 사람들 중 수백 명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하여 탄광 노무를 면하게 하였음. • 해방 후 귀국하여 고성 부농으로 약종상을 하면서 1953년부터 고성문화원장을 2001년까지 역임하였음. • 보도연맹 관련하여선 추후에 좌익 관련자들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 정계수(440호)도 포함된 것을 알고 많이 놀랐음.
15	박형률 (22)	사건 경험자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2009.4.2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8월 21일 인민군이 남해에 상륙하였음. • 해방 후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살려준다고 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 남해 경찰에서 보도연맹원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정용선’이 대한청년단장을 하였고 ‘서부청년단원’들이 좌익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고문, 구타를 자행하였음.
16	정주봉 (12)	사건 경험자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2009. 4.2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호(1013호)와 같은 마을주민. 창선면 대벽리에 가입자들이 많았음. ‘괭말동’은 좌익운동가로 동네에서 보도연맹 가입을 유도하였음. 괭말동과 정주호(1013호)가 사이가 좋아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보도연맹원인 ‘박임실’이 지서에서 호출명령이 나왔다고 알려주어 박임실 자신과 피해자 정주호 모두 창선지서로 갔음. • 박임실은 소환에서 빠지고 나중에 보도연맹원이 복곡 저수지와 강진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진술인에게 알려주었음.
17	남막래 (27)	사건 경험자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09.4.30.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전부락 최고령자. • 상주면 상주리는 좌익사상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구별 없이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시켰음. 일례로 김철환(1926호)은 당시 18세 학생이었는데 좌익검거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동무라는 말을 썼다고 하여 가입자로 몰렸음.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17	남막래 (27)	사건 경험자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09.4.30.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음력 6월 11일경 경찰이 문정두(1925호), 김재식(1927호), 박상윤(1928호), 김충완, 김철한(1926호)등 10명 정도 연행해 간 후 복곡 저수지 근처에서 사살되었음. • 문정두는 좌익사상자 중 우두머리급이었음. • 김재식과 박상윤은 문정두를 잘 따랐음.
18	강태호 (20)	사건 경험자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09.4.30.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피해자 김상윤(1929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상주부락에선 ‘김복도’와 김상윤 둘이 보도연맹건으로 복곡에서 죽었다고 이웃에게 들었음. 그러나 금전부락은 상당히 많다고 들었음. • 여수빈란사건 시 여수 방첩대에 잡힌 자가 상주부락 사람이었는데 부락민 중 20대 또래는 김상윤과 김복도 밖에 없었고 이를 기회로 김상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것으로 사료됨. 당시 진술인은 통영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화를 면하였음. • 경찰이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김상윤 외 보도연맹원들을 복곡저수지로 데리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복곡 근처에서 총살시키고 후퇴하였다고 이웃에게 들었음.
19	홍순규 (18)	사건 경험자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009.4.2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순영(4088호)과 같은 마을 주민. • 피해자는 1950년 7월 25일 남해경찰서로 연행되어 복곡에서 1950년 7월 27일 낮에 총살되었음. • 1950년 7월 27일 저녁에 복곡 야산에 올라가니 33명이 철사로 서로 묶여 총살된 상태였고 등이 하늘을 향해 있었음. 시신에는 지네가 붙어있었음.
20	하석준 (11)	사건 전문자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2009.4.2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피해자 류홍섭(6970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는 1950년 7월 15일 남해경찰서로 출두명령이 있어 자진 출두하였다가 10일 남짓 후 강진 앞바다 배에서 사살되었다고 이웃에서 들었음. • 모천부락에 ‘히명석’도 사살되었는데 강진앞바다에서 팔이 묶인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신을 직접 목격하였음. • 남해경찰서에 끌려간 사람들은 삼천포에서 미조면을 운항하는 순항선에 실려 나가 밤중에 선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한 명씩 호명되어 선상에 나오면 총을 쏘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들었음.
21	정두업 (25)	유족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2009. 4.2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창후(8181호)의 친동생. • 1950년 음력 6월 10일 창선지서에서 차가 와서 연행해 간 후 3일 후 복곡 근처에서 총살되었고 부모가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온 것을 목격하였음. • 당시 정창후는 냉천부락 구장을 하고 있었음 • 냉천부락은 3~4명이 잡혀 갔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음. • 보도연맹 관련해 대해서는 아는바 없음.
22	이정기 (29)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009.4.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권황석(365호)과 같은 마을 주민. 전쟁 전부터 좌익 토벌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동네 사람 대부분 매일 지서로 호출되어 고문을 당했는데 주로 ‘치안대’가 나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22	이정기 (29)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009.4.9.	면담 조사	<p>서 뼈리를 붙였는지 봉화 불을 몇 번 올렸는지 등을 취조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서에선 보련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고 무조건 도장을 강제적으로 찍게 하였음. 매도 많이 맞고 경찰 순경에게 뺨도 많이 맞았음. • 하동 지역은 시신이 전혀 수습이 되지 않았는데 전쟁 때 공습이 잦았고 경찰이 집어간 것이라 사람들이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권항석(365호)도 이때 잡혀갔음. • 양보면 주민 '성기조'의 말에 의하면 그 동생이 1950년 7월 24일 연행되어 "동박고개"에 총살되었는데 시신을 찾아왔다고 하였음. • 사건 현장에서 살아나온 '주범룡'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사망하였고 여동생이 근처 거주하고 있음.
23	이순남 (13)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009.4.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권항석(365호)과 같은 마을 주민. 좌익단체 가입자들은 양보지서로 아침마다 불려가서 자수와 보련 가입 도장 찍기를 강요당했음. • 지서에서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양보국민학교에 모아 놓고 가끔 강연을 함. 참석치 않으면 가족을 사형시키겠다는 업포에 대부분 참석하였다고 들었음.
24	정홍석 (17)	사건 경험자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009.4.8.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김윤배(3555호), 박일봉(3847호)과 같은 마을 주민. 1950년 악양지서에서는 진술인 또래들이 밤마다 순번을 정하여 5~6명씩 빨치산 습격에 대비하여 경비를 서곤 하였음. • 인민군이 음력 6월 11일에서 음력 8월 14일까지 하동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내려오기 직전에 보련 혐의자들을 갑·을·병으로 나누어 3일 정도 구금시킨 후 지리산이나 매티재 등에서 총살시켰음. 이때 김윤배(3555호)와 박일봉(3847호)도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보도연맹에 휩쓸려 끌려 갔음. 또한 권재우(7692호), 권용환, 송맹수 등도 잡혔는데 송맹수만 살아남았음. • 하동군청에 보도연맹원들이 감금되었을 때 김치현(군 간부 또는 서기 이후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이 석방 시키려고 하다가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고 함.
25	강복달 (18)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김재곤 (3666호)과 같은 마을 주민. • 김재곤은 당시 진주농림대학을 졸업하고 양보지서장을 지내다가 사표를 내고 집에 있었음. • 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하라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들었음. • 1950년 7월 20일 하동경찰서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된 후 동박 고개에서 처형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진주경찰서로 이송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음.
26	정양옥 (17)	사건 경험자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2009.6.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용덕(3209호), 정한철(3234호)과 같은 마을 주민. • 당시 대치부락은 100호 정도 되었고 이용덕과 정한철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26	정양옥 (17)	사건 경험자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2009.6.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 5명이 하동경찰서에 끌려갔음. • 그 이후 행방불명되었으며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변을 당하였다고 마을 사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음. • 행방불명 후 다들 짐작만할 뿐이었으나 총살 장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4~5년 후 이야기길 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음.
27	전치중 (18)	사건 경험자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2009.6.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구봉섭(9509호)과 같은 마을 주민. 해방 후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음. 보도연맹 사무실도 없었고 별다른 교육도 전무했으나 지서에서 한번씩 오라고 하면 갔음. • 하동군 보도연맹의 총 간부로 '전호일'이 있었는데 보도연맹 연행 시 미리 정보를 알아서 부산으로 도망을 갔고 따라서 보도연맹 학살시기에 죽지 않았음. • 사변 후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구봉섭을 밤에 덕천지서에서 두 명이 나와 트럭에 싣고 하동경찰서로 갔다고 들었음. • 당시에도 하동경찰이 죽었다는 말이 나왔고 군인은 잡아가지 않았음.
28	이정승 (18)	사건 경험자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2009.6.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구봉섭(9509호)과 같은 마을주민으로 진정리 조금부락은 가옥수가 50여 호였고 덕천지서가 근접해 있었음. • 전라도 넘어가는 '매티재'라는 다리에서 밤에 총살을 했다고 금남면 강포리 사람 중 살아남은 '전일동'(현재 사망)이 한달 후에 이야기해주었음. • 하동경찰서에서 5일 정도 감금되어 있었다고 들었으나 당시 분위기가 찾가지 못했고 이후에도 매티재에서 죽었다고 '전일동'이 말했어도 군사정권하에 빨갱이라는 낙인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했음.
29	이남순 (20)	사건 경험자	하동군 금남면 가덕리	2009.6.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전중영(9374호)과 같은 마을 주민. • 전중영은 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하여 1950년 7월 15일 금남지서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동경찰서로 송치되어 4일 정도 감금되었다가 트럭에 실려 나간 후 피살되었다고 들었음. • 피해자의 시신은 장소를 몰라 찾지 못했음.
30	정한용 (18)	사건 경험자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2009.6.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권수(3235호), 정한철(3234호)고 같은 마을 주민. 정권수는 1950년 7월 하동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나간 이후 생사가 불명됨. • 정한철은 '전정식'이 하동경찰서에 가라고 해서 간 후 그 날짜가 1950년 5월 중인데 자세한 날짜는 잘 모름. 전정식은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음. • 정한철이 1950년 5월 전쟁 전에 하동경찰서로 갔는데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30						<p>보도연맹원들을 갑·을·병으로 구분했는데 갑에 속해서 일찍 끌려 간 것으로 추측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하라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함. 누가 찍으라고 했는지는 잘 모름. 외가 당숙이 당시 하동경찰서에 감금된 상태인데 정한철을 보았다고 함. 그 후 다음 날 트럭에 실려 갔고 정확한 날짜는 잘 모름. • 피해자 정한철이 죽은 후 빨갱이 집안이라 해서 경찰서에서 그 집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해 동네에서도 외롭게 지내고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음.
31	서병춘 (15)	사건 경험자	하동군 적량면 서리	2009.7.1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량면 서리 상서부락 주민이었음. 적량면 서리 상서부락은 60호 정도로 '강대권'이 적량면 면서기로 좌익 활동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서부락민 대부분이 1949년 이후 경찰서에 가서 빨갱이 짓 했는지 취조와 폭행을 당하였음. • 1950년 전쟁나자 상서부락민 윗담에서는 유용덕(6162호), 유철우(6162호), 강응석(6163호), 강대업(6163호), 강대윤(6164호), 황용구(6165호), 황용덕(6166호) 강대익(6169호), 유정우(6171호)등이 보도연맹으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32	강대섭 (12)	사건 경험자	하동군 적량면 서리	2009.7.15.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정섭(6167호), 강원수(6173호)과 같은 마을 주민. • 하동군 적량면 서리 도장골 아랫담에서는 최정섭, 강원수가 1950년 전쟁 전후 여름에 경찰에 연행되었음. 이후 주민들 말이 보도연맹으로 끌려갔다고 이야기하였음.
33	박단용 (20)	사건 경험자	하동군 적량면 서리	2009.7.1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갑수(6170호)와 같은 마을주민. 서리 동정부락은 가구 수가 50호 정도였는데 '강대권'의 영향으로 20대 중반 마을주민은 전쟁나기 전 대한청년단원 '이원일'과 경찰들에 의해 자주 지시나 구장 집에 불려가 고문을 당하였고 강갑수도 그러하였음. • 동정부락에선 강갑수, 이윤기, 박석주 등이 전쟁당시 보도연맹으로 잡혀가서 행방불명되었다고 들었음.
34	정명관 (20)	사건 경험자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2009.7.1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경만(9582호)과 같은 마을주민. 해방 이후 좌우익 대결이 고절리에서도 있었는데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편을 갈랐음. • 사회주의 운동가인 '신석영'과 친한 상여부락민이 10여 명정도 있었음. • 전쟁 전 5월 경찰이 신석영 등에게 "며칠날 빨치산 부대가 오니깐 모여라."라고 덮을 놓아 박경만과 당일 모인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였고 신석영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음. • 박경만과 몇몇은 하동경찰서에서 진주형무소로 이송되었고 전쟁 발발 후 사살되었다고 들었음.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35	유한상 (14)	사건 경험자	악양면 매계리	2009.7.16.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박동원(9580호), 유흥권(8322호), 유기석(10300호)과 같은 마을주민. 하계면의 '김태순'이 해방 이후 좌익 활동을 주도했는데 동서 유주용이 매계 부락에 있었음. 진술인의 기억에 '붉은 기를 지킨다.' 이렇게 외치는 소릴 들었음. • 전쟁 1년 전 유주용, 유우문, 유종대 등 마을주민은 당시 하계면 주둔부대에 의해 사살되었음. • 경찰서에서 호출하여 기합주고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자백을 받아 지수 전향케 하여 보도연맹 가입시켰음. • 1950년 음력 6월 6일 최중순, 유성구, 심기석, 유기석(10300호), 유우윤(8323호), 박동원(9580호)등이 당시 끌려갔음. 피해자 유흥권(8322호)은 출두명령을 받고 "지서에서 뭔일일까?"하며 악양지서로 갔음. 이후 하동경찰서로 송치되어 며칠 있었다고 함. • 음력 6월 12일 인민군이 하동을 점령하고 난 후에 시신을 찾으러 악양면 사람들이 매티재나 진양호 쪽으로 수색하였고 찾은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전쟁 중이라 못 찾은 경우가 많았음.
36	김주 (24)	사건 경험자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2009.8.12.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최수열, 최홍열(7306호)과 같은 서황리 중촌부락 주민이었고 서황리 이장을 역임하였음. •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중촌부락에 북천초등학교 '차○○' 교사가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여 중촌부락에 청년 20명 중 10명 정도가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였음. • 보도연맹은 지서에서 앞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피해자 최홍열이 가입했다고 들었음, 피해자는 당시 좌익 검거 때 피해 다녔는데 자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서 가입하였고 한청에서 관리도 하였음. 한청단장은 '정택영'이었음. • 1950년 7월말경 북천지서에서 오라고 해서 출두한 후 행방불명되었음.
37	김용주 (17)	사건 경험자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2009.8.12.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박학수(5685호)와 같은 마을주민 • 방화부락에선 김락환(7486호), 박학수, 이기일 등이 좌익사상에 가담하였는데 이기일은 보도연맹 사건에 앞서 형무소에 있었고 전쟁 시 보도연맹으로 끌려간 마을 주민은 박학수와 김락환 두 명이었음. • 1950년 7월 20일경 북천면사무소로 나오라고 하여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38	이천석 (19)	사건 경험자	하동군 적량면 서리	2007.7.1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강갑수(6170호)와 같은 마을 주민이었음. • 1950년 음력 5월 18일 동네 뒷산에서 숲을 굽고 있었는데 군경 합동수색에 걸려 이후 행방불명되었음. • 당시 동네 사람 중 맞지 않을 사람을 없을 정도로 빨갱이 심문을 많이 받았음. • 동정부락에선 이윤기, 박석주 두 명이 전쟁 당시 보도연맹으로 잡혀가서 행방불명되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39	김영환 (24)	사건 경험자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2009.8.12.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김락환(다-7486호), 박학수(다-5685호)과 같은 마을주인으로 방화리 이장을 역임하였음. 김락환, 박학수는 전쟁 전 좌익운동으로 인하여 피신해 다녔고 따라서 경찰은 가족에게 갖은 고문과 폭행을 가하였음. 경찰이 신변보장을 해준다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해서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다나왔고 피해자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피해자들은 음력 6월 6일 북천면사무소로 교육이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음. 이튿날 마을주민인 '김용태'가 논에 나갔는데 트럭에 두 대가 가고 있던 중 김락환이 김용태를 부르며 "나 진주로 나간다. 집에다 말해라"라고 했다고 함. 트럭에는 사람들이 기립자세로 뻥뻥하게 서 있었다고 말하였음.
40	정평화 (18)	사건 경험자	하동군 청암면 위태리	2009.8.1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최규호(다-4626호)와 같은 마을 주민. 인민군이 남하하기 시작하니 자유당 (이승만 단체)과 지서 주임 등이 나서서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다 보도연맹 가입을 시켰음. 또한 가입해놓으면 좋다고 해서 대부분의 식자층과 농민층 중 똑똑한 사람은 가입을 하였음. 청암면 위태리에선 5명 정도가 보도연맹 관련하여 끌려갔는데 피해자 최규호는 당시 위태초등학교 교사로 복무, 식자층이라 가입한 것으로 들었음. 음력 6월 초에 청암지서로 자발적으로 출두하였음. 진술인의 형 '정점화'도 가입이 되었는데 청암지서에 갔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 풀려났음. 피해자들은 트럭에 태워져 바로 하동경찰서로 갔음. 하동경찰서에 감금되었다가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후 인민군이 진주 점령 전에 진양군 명성면 용산고개에서 처단되었다고 이웃에게 들었음.
41	이원구 (21)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강용석(916호)와 같은 마을주민. 당시 강용석은 어머니와 동생 2명이 함께 남의 집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음. 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하라 해서 가입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가입하라 권했는지는 잘 모르겠음. 1950년 7월 15일(음력 6.1) 양보지서에 자진 출두 후 하동경찰서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됨. 하동과 전라도 경계 지역 계곡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음.
42	김도석 (28)	사건 경험자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이상백(7635호)이 진교면 면서기로 있을 때 진술인은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음. 이상백은 당시 호적계에 있었고 진교면장은 '이상백'으로 같은 일하였음. 고이리에서 당시 7~8명 정도 보도연맹에 관련하여 사망하였는데 기억나는 이름은 김종관, 김중우, 이상백 등이 있었음. 당시 좌우익 대립이 있었고 못사는 축에 속하면 좌익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42	김도석 (28)	사건 경험자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2009.6.23.	면담 조사	<p>으로 타의 반, 자의 반으로 휩쓸리는 분위기였음. 또한 조금만 수틀리면 우익진영에서 좌익으로 몰아대는 분위기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음력 6월 근무 중에 피해자가 결석을 하였고 이후 보도연맹 관련하여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 • 차에 싣고 산골로 가다가 사살했다고 들었음.
43	이동석 (27)	사건 경험자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송삼수(7695호)와 한동네 마을주민으로 송삼수에게 한문을 배웠음. • 1950년 7월 25일에 황천지사로 잡혀갔다는 소릴 들었음. • 황천지사에서 2명이 나와 부락민 송이수, 송삼수(사촌 관계), 정태현을 연행해갔음. • 다음날 바로 하동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1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음. 고문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살아남은 정태현(현재 사망)이 알거라 여기는데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음. •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고 적량면에서도 많이 죽었는데 겁이 나서 다들 쉬쉬하다가 나중에 송삼수가 행방 불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44	송근우 (18)	유족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삼수(7695호)의 오촌 조카. • 송삼수와 송이수는 진주형무소로 끌려갔고 송삼수의 유족이 찾아갔으나 면회가 되지 않았음. • 정태현은 매티재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았다고 들었음.
45	장호진 (22)	사건 경험자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09.7.1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장을석(8411호)과 같은 마을에 거주했음. • 장을석은 배운 것도 없고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으로 보도연맹 가입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6·25전쟁 발발 후 경찰에게 옥종지사로 잡혀가서 생사불명되었음.
46	이복택 (19)	사건 경험자	하동군 옥종면 청서리	2009.7.20.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필택(3984호)과 같은 마을주민. • 양재호는 전쟁 전에 옥종면 면장을 역임하였는데 보도연맹회장을 하였음. 이필택도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교육 받으러 간다는 이야길 들은 바 있음. • 1950년 음력 6월 초하루에 옥종지사로 자진출두한 후 6월 12일 마을 주민이 진주에서 하동 넘어오는 진양호 댐 근처에서 트럭에 사람들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 가운데 이필택이 있었고 마을 주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음. • 음력 6월 초하루에 옥종지사로 출두한 후 하동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이야길 듣고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안 빼내고 그냥 내버려두어서 결국 죽게 되었다고 피해자의 아버지 형제간끼리 큰 소리 내는 걸 보았음.
47	장도용 (30)	사건 경험자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09.7.20.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장두석(8415호)과 같은 마을 주민. • 장두석은 농사만 짓고 무학이었음. 1950년 7월 15일 옥종지사로 자진 출두하였다가 그 다음날 하동경찰서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47	장도용 (30)	사건 경험자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09.7.20.	면담 조사	<p>이승되었다고 들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풀 베러 일찍 나갔기에 화를 면하였으나 만약 늦게 나갔으면 자신도 피해자들과 같이 화를 입었을 것임. 동네 사람인 '황인섭'이(현재 사망) 진주에서 고향으로 오던 중 옥종면에서 끌려갔던 자들이 진양호 백수장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장두석이 있었고 장두석이 황인섭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말했고 황인섭이 없다고 말하였고 후에 고향에 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였음. 당시 분위기상 피해자가 지사로 갔어도 면회 갈 엄두를 내지 못했음.
48	김필명 (30)	사건 경험자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009.7.1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한수성(2645호)의 처제로 피해자의 바로 이웃 집에 거주하였음. 진술인이 일본에 있다가 해방 후 옥종면 북방리 토골에 거주하자 한수성도 사천에 살다가 노름 빚 때문에 북방리 토골로 이사 왔음. 당시 토골은 200호가 되었고 피해자는 반장을 역임하였음. 북방리에선 7~8명 정도 보도연맹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음. 전쟁 전 구장의 황령 사건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문 받은 적도 있고 전쟁 후엔 모락을 받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빨갱이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것임. 1950년 음력 6월 초 하루 옥종지사로 자진 출두 하였고 한 삼일 있다가 하동경찰서로 갔고 이후 행방불명되었음.
49	이흥규 (15)	사건 경험자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2009.8.1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조갑제(4022호)와 같은 마을 주민이었음. 조갑제는 옥종면 가종국민학교 교사를 하였음. 학교에서 저녁에 숙직하고 있던 중 등산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빨치산이 빠리를 부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방조한 혐의로 옥종지사에서 피해자를 연행해 갔다고 들었음. 옥종지사에서 차에 싣고 하동경찰서로 넘어갔음. 이후 행방불명되었음. 청암면 최규호(4626호)가 진양군 명성면 용산고개에서 총살당하였다고 들어서 피해자도 비슷한 장소에서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50	유홍갑 (26)	사건 경험자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2009.7.16.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유우윤(8323호)과 같은 마을 주민. 1950년 7월 20일 유우윤은 지사의 호출 명령에 따라 악양지사로 자진 출두하였음. 이후 하동경찰서로 송치된 후 행방불명되었음. '신기하'라는 사람은 매티제에서 총살되어 그의 아버지가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유우윤은 수습되지 못하였음.
51	이태임 (25)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오촌 조카인 '여두호'와 결혼하여 피해자 여준규(9578호)와 한동네에 살았음. 피해자는 목수였고 한문을 잘 알았음.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51	이태임 (25)	사건 경험자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2009.6.23.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되고 나서 좌우익 충돌로 이리저리 피해를 많이 받아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음. • 피해자가 경찰을 피해 사천군에서 목수일 하던 중 양보 지사에서 자수하면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음. 이후 1950년 음력 6월 10일 양보지사에서 새벽에 연행하였고 당일 하동경찰서로 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 2주 후 썩어서 얼굴도 모르나 주민증을 보고 시신을 찾았음. 총상부위도 썩은 상태였고 손이 묵인 상태였음. • 박달리 동박부락에선 ‘하용원’, ‘김채영’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그들도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행방불명되었으 며 진주와 전라도 사이에 있는 동박고개에서 사살되었다고 들었음.
52	유순식 (27)	유족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2009. 4.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유원식(6092호)의 친동생. 당시 유원식은 분가하여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음. • 명성리는 70호 정도 구성되어 있었고 보도연맹은 개천 지서는 개천초등학교에서 보도연맹원 7~8명 정도 정신 교육을 시켰음. 개천지서에 백○○순경이 악질로 동네에 유명했음. • 피해자는 전쟁나자 바로 개천 지서로 연행되어 갔음. 개천지서로 연행된지 한달 후 시신이 원동골짜기 아산에 있다고 하여 갔으나 찾지 못하였는데 당시 현장엔 두 구덩이가 나누어서 시체가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음. • 8월 중순경 피해자의 시신을 하일면 학림리 아산에서 찾았음.
53	강태봉 (24)	사건 경험자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2009.4.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피해자 유원식(6092호), 강대학(10330호)과 같은 마을주민. 유원식, 강대학과 같이 개천지서로 잡혀갔으나 아는 사람이 있어 석방이 되었음.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름. • 원동골짜기 아산에서 살아나온 성명불상자(직업:엿장수)가 주위의 신고에 의해 다시 잡혀가 총살당하였음.
54	최재연 (15)	사건 경험자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009.7.22.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원(미신청)과 같은 마을주민. 김종원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는데 19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원 체포소식을 접하자 피해자는 통영으로 도망갔다고 들었음. • 통영 의장막 사랑도로 피신하였으나 8월 15일 CIC대원 최석범과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3주정도 지나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55	박정례 (20)	사건 경험자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2009.3.31.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박건석(8729호)과 같은 마을주민. 박건석은 동해면장으로 있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한 후 1950년 7월 고성경찰서에 출두한 후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 박건석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와 박건석의 아내가 영현면 쓰리재 한 구덩이 안에서 박건석 시신을 수습하였음. • 피해자 박공수(10337호)도 같은 날 경찰서에 호출되어 출두한 후 옥천사 부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가족이 지계에 지고 왔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56	정봉기 (18)	사건 경험자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2009.10.29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정창후(8181호)와 같은 당항리 냉천부락 마을 주민. 1950년 7월 24일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창선지에서 와서 피해자를 연행해갔음. 3일 후 복곡 근처에서 총살되어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온 것을 보았음.
57	김○○ (25)	보도 연맹원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2009. 4.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때 독립운동가로 김○○이라는 한의학박사의 영향으로 그의 고향인 고성 20~30대 대부분은 가입하였음. 또한 좌익으로 지사에서 거동수상자로 여긴 자를 데려다 무조건 자수하라고 협박하여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음. 보련의 결성 시기는 전쟁나기 몇 달 전 겨울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함. 개천지에서 보도연맹에 무조건 가입시켰고 간부란 것도 없이 모두 일반 회원이었음. 자신은 보도연맹의 서기 역할을 하고 있었음. 지서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개천초등학교에서 시국 수습 강연이나 반공교육 등을 매일 내지 삼일에 한 번씩 받았음. 김동개(8985호)와 유원식(6092호)은 1950년 7월 중순경 보도연맹건으로 경찰서로부터 호출을 받고 나간 후 원동고개에서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되었음.
58	김○원 (25)	보도 연맹원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2009.4.29.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봄 좌익계열을 자수 또는 검거하여 보도연맹을 만들었음. 이동면에선 30~40명 정도 가입. 국민축진회(이승만 지지단체)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보도연맹으로 몰아서 가입시켰음. 전쟁 후 1950년 7월 중순 보도연맹원 중 A급 70~80명 정도가 남해 경찰서에 잡혀 갔음. 복곡에서 33명 사살되었고 이틀 후 강진앞바다에 나머지는 수장 당하였음. 보도연맹은 사찰계에서 주도하고 간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59	정○섭 (28)	보도 연맹원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2009.4.30.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류홍섭 (6970호)과 같은 마을 주민. 해방 후 건준이 결성된 후 남해 문항리 모천부락에도 '이학용'이 중심이 되어서 건준위가 만들어졌음. 당시 건준은 좌익 사상이 이학용을 비롯해 하명숙, 류홍섭이 가담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학식이 높은 수준급으로 자연히 1950년 봄 보도연맹 가입과 연결되었음. 모천부락에서는 보도연맹원으로 10명 넘게 가입되어 있었고 대부분 배운 사람들을 강제 가입시켰음. 남해경찰서에 출두하여 전쟁 전 교육을 받아왔음. 하명숙과 류홍섭은 1950년 7월 중순 경찰에 연행된 후 강진 앞바다에 수장되었다고 들었음.
60	박○권 (21)	보도 연맹원	하동군 적량면 서리	2009.7.1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2월경 평양에서 온 마을주민 '장송이'와 정동 사람 권재우(7692호)는 '최점록'의 사랑방에서 진술인을 포함 동네주민 9명에게 보도연맹 신청서를 받아 줌

제 6 권

연 번	성명 (당시 연령)	사건과 의 관계	지역	진술일자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60	박○권 (21)	보도 연맹원	하동군 적량면 서리	2009.7.15.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이 내려오기 1주일전쯤 하동경찰서 경찰에게 잡혀가 유치장에 1주일정도 구금되었음. 그후 유치장에 갇혀있었던 50명과 함께 매티자로 끌려가 경찰에 쓴 총에 미리 쓰러져 구사일생으로 ‘여신구’(이후 부산으로 피신하였으며 5년 전 사망)와 같이 살아남았음.
61	정○화 (25)	보도 연맹원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09.7.14.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당시 옥종면 대곡리 동곡부락 보도연맹원으로 있었으나 전쟁후 하동경찰서 청암지서 기동대원으로 활동 하였음. • ‘정종화’, ‘이두만’ 등이 동곡부락에 건준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자신도 거기에 가입하였음. • 우익성향인 옥종면 독립촉성국민회 지부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며 보도연맹 가입을 권유받고 진술인 외 동곡부락 2명이 가입하였음. • 사변 후 갑·을·병·정으로 나누어 갑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진주형무소로 보내졌고 인민군의 남하소식이 들리자 을·병에 속한 사람들도 살해되었음. 경찰에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도연맹으로 누명을 씌웠음. 진래제 국시골 골짜기 논두렁에서 노대석 부자(父子)가 사살되었음. • 진술인은 청암지서 갔다가 차에 실려 하동경찰서로 넘어갔음. 하동경찰서 사찰계 ‘정수근’ 형사가 진술인과 동일한 종씨라 풀어주어 5일 만에 집에 돌아왔음. 최규호(4626호), 조갑제(4022호)도 그때 연행되어 최규호는 자신이 나온 후 진주형무소로 끌려갔고 진주형무소에 있다가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와서 진양군 명성면 용산고개에서 총살당하였음. • 하동경찰서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1950년 7월 24일경 진주형무소로 가는 길에 마동다리에서 순경이 풀어주려고 일부러 물 좀 먹으라며 쉬게 하였음. 그때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도망가면 되는데 모르고 다들 목만 축이고 트럭에 다시 올랐다고 트럭 운전사가 이야기 해주었음. • 옥종면 대중부락에 ‘양장환’ 형제가 사살현장에서 총을 피해 살아나왔음.

〈표 4〉 경찰 측 참고인 조사 내용

연번	성명 (당시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⁵⁾
1	유○○ (19)	하동경찰서 기동대	2009. 4. 8. 참고인 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6.25 참전 유공자로 1950년 11월 군에 입대, 제주도 제1훈련소 제1연대 19중대 훈련을 받고 보병 제2사단 수색중대에 배속되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번	성명 (당시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⁵⁾
1	유○○ (19)	하동경찰서 기동대	2009. 4. 8. 참고인 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경남 하동군에서 ‘치안대’로 활동하였고 당시 ‘하동기동대’로 칭하였음. • 하동 화개면에 사회주의자가 많았음. 경찰에서 보도연맹원을 잡으라고 해서 체포하여 인계하였음. • 기동대는 주로 2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경찰 앞잡이 역할을 하였음. 보련은 주로 생활이 곤란하고 무학인 자들이 가입했음.
2	서○○ (20)	고성경찰서 하일지서	2009. 5. 14. 고성군청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6.25 참전 유공자로 1950년 6월 이북진출경찰관 시험에 합격해서(합격한 사람이 20~30명) 고성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후 의용경찰로 재발령 받았음. 고성경찰서 의용경찰 합격증에 ‘최천’ 도경찰국장 명의로 발령받은 것으로 되어있음. • 당시 고성경찰서 하일지서에서 외근(경비일)을 맡고 있었고 수감자들하고는 대화가 금지되었음. • 잡이온 사람들은 사찰계에서 처리했음. 좌익혐의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함정수사를 하였으나 애매하게 잡힌 사람들이 많았음. • 당시 잡이온 보도연맹원이 수십 명인데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음.
3	이○○ (21)	고성경찰서 삼산지서	2009. 5. 14. 고성군청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당시 고성경찰서 삼산지서에서 의용경찰로 있었음. 의용경찰은 군인 대신 보도연맹원 잡으러 다니는 일을 했고 경찰서에 인계하면 경찰서에서 처리하였음. • 하일면이 적색분자가 제일 많았고 개천면이 그 다음으로 심했음. • 좌우충돌이 많았고 사적으로 서로 죽이는 일이 많았고 우익단체에 의한 가해행위는 경찰에서 우익편이라 방조했음. 보도연맹원들의 구체적인 처형 장소 및 처형 시기는 각 지서마다 달라서 잘 모름.
4	김○○ (20)	고성경찰서 개천지서	2009. 5. 14. 고성군청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전쟁당시 산청경찰서에 순경으로 등용된 후 1956년 6월 고성경찰서로 전근. 대가지서장, 삼산지서장을 역임. • 육이오사변 전 좌익 동조자가 있어 보련을 조직하였고 요시찰 대상자를 사찰계에서 한 달에 한번 동향 파악을 위한 내사를 하였음. • 보도연맹은 자수기간 중 보련에 가입시켜서 일정 장소에 집합을 시켜 교육을 시켰으나 사변이 일어나자 인민군에 가담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총살을 시켰음. 여기엔 경찰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중앙에서 명령이 왔고 G2가 개입했다고 봄. 문서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여김. • 보도연맹 가입비나 자수서를 받았으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함. • 보도연맹 처형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통지를 한 적이 없으며 유족을 요시찰 대상으로 삼아 ‘요시찰’ 자료로 영구 보존되어 있으나 대외비임.

제 6 권

연번	성명 (당시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⁵⁾
5	김○○ (19)	고성경찰서 경비계	2009. 5. 14. 고성군청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산청에서 의용경찰로 활동하다가 순경으로 취직. 경비계에서 근무. 이후 1953년 고성경찰서에 부임. 진술인은 공비토벌을 주로 하여 1950년 9월 19일 '표창장'을 경찰국장 최천 명의로 받았음.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좌익 성격을 가진 자였음. 대한청년단이나 서북청년단 등 협조단체에서 전담반을 정해 좌익 혐의자를 경찰서에 알려주면 이를 토대로 정보과에서 보도연맹 가입시키고 맹원 관리는 주로 사찰계에서 담당하였음. 보도연맹원에 대해 중앙에서 기일을 정하지는 않고 단지 "처단하라"라고 통보가 왔음. 보도연맹 처형에 대한 문서기록은 했을 것이나 자신은 모름.
6	김○○ (22)	하동경찰서 황천지서	2009. 6. 4. 참고인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6.25 당시 하동경찰서 황천지서에서 근무 중 지리산으로 좌익 토벌하러 여러번 갔음. 당시 동네에 좌우익이 있었고 '좌익이다.'하면 맞아서 골병이 다 들었음. 지리산, 백운산에서도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황천면 애치리에서도 보도연맹원 5~6명이 죽었음. 당시에 좌익 운동가 중 정권수(3235호), ○충오, 임상진, 송삼수(7695호)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당시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시키면 '간부'가 되어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음. 보도연맹원을 황천지서로 잡아들인 후 하동경찰서로 다음날 이송했고 그중에 경찰의 친척관계이거나 돈을 내면 풀어주기도 했음. 경찰서장이나 지서장 중에 악독한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 황천면의 송삼수는 '송'가들을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시켰고 이로 인해 '송'가들이 많이 죽었음. 보도연맹원 중 간부들을 먼저 죽이고 다음에 도장 찍은 사람들을 처형시켰음. 밤에 많이 죽었고 소리 소문 없이 죽여서 유족들은 시신은 거의 못 찾았음. 혹시 장소를 알더라도 시체 구덩이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여자 혼자서는 더욱 찾기가 힘들었음. 경찰 중에도 순 악질이 있었는데 한번은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물건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한 적도 있음. 좌익활동한 사람들은 일제 때 많은 사람들을 밤에 야학도 많이 시켰음.
7	안○○ (22)	하동경찰서 전투경찰	2009. 6. 4. 참고인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당시 하동경찰서 전투경찰로 있었음. 당시 대한청년단이 보도연맹원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고 '이병호'가 대한청년단 단장 이었음. 보도연맹원들은 6.25전쟁 나고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많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번	성명 (당시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⁵⁾
7					이 잡아갔다. 장소는 전라도 어디라고 들었으나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 황천면 학리에도 보도연맹원으로 죽은 ‘이용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음.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무슨 노래도 부르고 교육도 받고 좌익활동을 한 것 같다. 죽고 나서 보도연맹원에 가입해 활동을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음.
8	정○○ (23)	하동경찰서	2009. 6. 4. 진실화해 위원회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1950년 6월 당시 하동경찰서에 근무했음. • 당시 황천면 남산리에 이장을 보던 ‘정이권’이라는 사람도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죽은 일도 있음. • 하동경찰서에서 사무도 보고 경비도 썼으나 보도연맹 관련 업무는 극비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름. • 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던 사람들은 하동경찰서 경찰들이 했으며 보도연맹 처형지시는 경남도경찰국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보련 처형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적은 없으며 보도연맹 처형 후 처형했다는 문서기록은 진술인 생각에 10년이 넘으면 문서를 폐기하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함.
9	박○○ (21)	하동경찰서 황천지서	2009. 6. 4. 진실화해 위원회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1950년 6월 당시 하동군 황천면에서 대한청년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음. 대한청년단 단장 ‘이병호’라는 사람이 있었음. • 황천면 대한청년단은 30명 정도 있었고 황천면 지서에 속한 기관으로 지서에서 하는 일을 협조했음. • 보도연맹원들은 대부분 좌익 성격을 가진 자였음. • 보도연맹 연행이나 처형 장소 등은 잘 모름.
10	이○○ (23)	하동경찰서 순경	2009. 4. 15. 하동군 옥종면 총흔탑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연맹사건은 남로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여수, 순천에서 우익 사람들을 죽이니까 군인들이 경찰서 사찰계 형사 시켜서 보도연맹원을 구속한 것임. • 전쟁 발발 후 후퇴할 적에는 실려준다고 보도연맹에 가입해있던 사람들을 정보과에서 싹 다잡아갔음. 유치장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금해서 두드려 패거나 데려다가 즉결 처형해버렸음. • 적량면과 금남면에서 좌익이 강했음. • 3연대 정보과 ‘김○○’대위는 덮어놓고 사람을 싸죽였음. 나중에 서울가서 내무서장을 했음. 일제강점기 때 지원병 출신으로 지서든 잠처든 낮이고 밤이고 없었음. 사람 죽이는데는 분간 없이 민간인 죽인 것은 모두 ‘김’대위와 관련이 있음.
11	정○○ (27)	하동경찰서 순경	2008. 12. 5. 참고인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1949년 12월 부산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동경찰서로 발령받았음. • 인민군이 들어오긴 직전 보도연맹원들이 하동경찰서 유치장에 잡혀왔고 유치장의 크기는 40~50명 정도 들어갈 크기였는데 보도연맹원들이 수차례 구금되었다가 나갔음.

제 6 권

연번	성명 (당시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⁵⁾
11	정○○ (27)	하동경찰서 순경	2008. 12. 5. 참고인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근하던 중 차출되어 분대 9명과 같이 기관총을 차에 걸고 칼빈으로 무장한 채 쓰리쿼터와 화물차로 보도연맹원 30~40명을 구레 밤재를 넘어 남원경찰서에 넘겨주었음. 인솔자인 소대장이 남원경찰서에 보도연맹원 명단을 넘겨 준 것을 보았음. • 광양 매티재의 보도연맹원 즉결처형은 하동 경찰서 사찰 계가 했음.
12	김○○ (18)	남해경찰서 창선지서	2009. 8.13. 남해경우회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지역은 인민군이 1950년 음력 7월 7일부터 추석전 날 8.14일까지 점령하였음. • 자신은 보도연맹 처형에 관련하여 ‘복골저수지’에서 처형당한 것을 남해에선 ‘복골’로 부르며 “(잘못하면) (복)골로 간다.”란 말이 있을 정도였음. 복골에서 살해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위에선 처형을 지시하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음. • 남해는 ‘감상두’⁶⁾를 제외하고 적색 사상이 없음. 감상두는 적색 사상가로 전쟁 시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강진 앞바다에서 묶어가지고 총살시켜서 바다에 빠뜨린 사실도 들은바 있음.
13	○○○	남해경찰서	2009. 8.13. 남해경찰서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남해경찰서 정보과 3과에서 대공을 담당하였는데 검은 색 표지로 된 『처형자명부』가 존재하였는데 2장에 장당 수십 명이 성명, 주소로 기록되어 있었음. 대략 30~40명 정도 되어보였음. • 이후 1990년 후반 다른 계로 업무전환 후 2002년에 다시 정보과로 왔을 때는 처형자 명부가 없었음. 보존연한이 있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도경에서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처형지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경상남도 경찰국에서 관련 문서를 관리하고 남해경찰서엔 없음.
14	김○○ (17)	고성군 대한청년단 대원	2009. 5. 14. 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고성에서 대한청년단원으로 있다가 인민군 진입 시 통영으로 피난을 갔었음. • 고성에선 똑똑하고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 중심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인민군에 동조할까봐 보도연맹원들을 감금하고 총살시켰음. • 전쟁 당시 병력이 모자라 나이가 20~4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강제 입대시켰고 일제 때 구식 총을 가지고 부산 가야에서 1주일 훈련시켜서 낙동강전선에 투입시켰음.
15	정○○ (21)	하동군 옥종면 대한청년단 대원	2009. 4.19. 하동군공원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하동군 옥종면 출신으로 대한청년단 특공대원이었음. • 전쟁 전 반란군 토벌하러 다녔고 마을 주민들 중반란군 협조자는 지서에서 즉결처형을 많이 했음. 풀려난 사람도 있지만 유치장에 주로 가두었다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많았음.

연번	성명 (당시 연령)	소속	진술일 진술장소	조사 형태	주요 진술내용 ⁵⁾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전 15연대가 와서 토벌에 참여했고 이후 3연대가 주둔하여 전쟁 이후 1.4후퇴 시기까지 거주하였음. 유치장엔 2~30명이 들어갈 수 있어서 반란군 협조자를 잡아서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전부 화개의 조합창고에 구금시킨 후 섬진강 강변에서 즉결처형을 많이 했음. 전쟁 시엔 보도연맹이라고 하여 전부 데려다가 매티재에서 죽였음. ‘정계화’라는 보도연맹원은 하동경찰서에서 돈 주고 풀려났음.
16	강○○ (23)	하동군 옥종면 대한청년단 대원	2009. 4.16. 하동군공원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하동군 옥종면 출신으로 대한청년단 대원이었음. 옥종지사에 한청대원이 100여 명이었고 한청은 1949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단장이 ‘서태식’이었음. 3연대가 옥종 사람들을 많이 연행해갔음. 3연대는 옥종 초등학교 앞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반란군에 협조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음. 전쟁이 난 후 보도연맹원들을 하동경찰서에 가두었다가 강가로 데려가서 총으로 쏘 죽였다고 들었음.
17	소○○ (22)	진주형무소 형무관	2008. 1. 7. 자택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인은 1948년 간수교육을 받은 후 1월 1일부터 진주형무소 보안과에 근무하였음. 당시 진주형무소는 50~60여 명이 수용가능 하였는데 주로 죄익사범이 수용되었음. 헌병과 CIC가 죄익사범과 보도연맹을 체포 연행하였고 진주형무소에도 특공대가 10여 명 있었음. 하동, 고성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과 죄익 사범들을 간수로 하여금 포승을 죄게 한 후 헌병이 데리고 나가 지리산으로 가서 모두 죽였음.

다.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보도연맹원의 구금 장소, 희생 현장, 가해자측 시설(경찰서, 지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로 고성군에서는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고개, 개천면 원동골짜기 등이 확인되었고 남해군은 이동면 복곡저수지

- 5) 참전경찰 대상 조사는 보훈청에서 입수한 「참전경찰명부」를 가지고 1차 전화조사, 2차 면담조사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이 연락처가 부실기재 되었거나 사망 또는 전쟁 당시 해당 군내 경찰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고성군의 경우 27명을 탐문한 결과, 4명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남해군은 23명 탐문한 결과, 1명의 진술조사가 이루어졌고 하동군은 32명 전화탐문 후 6명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4> 경찰 참고인 조사 내용 참조.
- 6) 사실조사서의 (9) 주민등록 행불자 및 (12) 죄익수 항에 감상두는 “6.25 당시 남해군 인민위원회 서무과장으로 부역 후 행불된 자임”으로 기재돼 있다. 남해경찰서, 「사실조사서」 참조.

근처 야산 및 강진만 앞바다 부근을 현장 확인하였다. 하동군은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를 현장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별첨]과 같다.

II. 조사결과

1. 사건 경위

가. 개요

1949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남로당원 자수기간⁷⁾과 더불어 경남 보련 시국발기 대회가 11월 11일 개최되었다.⁸⁾ 1949~1950년의 신문 자료를 보면 남로당 탈당 광고를⁹⁾ 자주 접할 수 있는데¹⁰⁾ 국민보도연맹 경남도연맹 선포대회는 1949년 11월 20일 개최되었다.¹¹⁾

1949년 12월 당시 자수·전향자의 수는 경남의 경우 5,000여 명에 달했고¹²⁾ 각 지역의 자수자 중 하동은 134명, 고성은 43명, 남해는 36명이었다고 보도됐다.¹³⁾

피해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조사와 참고인·신청인 조사를 했다. 국민보도연맹에서 규정한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좌익전향자'였다.¹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실규명 대상자 등 70명의 판결문 등 행정기록을 조사한 결과 2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¹⁵⁾ 이 표를 보면 이들은 1947년부터 1950년 초반까지 국가보안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의 죄로 복역했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자수하면 죄과는 백지로 한다'는 발표문은 당시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남선경제신문, 1949년 11월 6일자; 부산일보, 11월 4일자; 자유민보, 1949년 11월 9일자. 또한 자수 권고를 경남도연맹 선전부장이 직접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자유민보, 1949년 12월 23일자.

8) 임시발기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정국, 부산지방법원장: 김동환, 경찰국장: 최철용, 사찰과장: 신영주, 23연대장: 장석운, 방공총재: 박순야, 경남국민회 위원장: 탁임조, 대한청년 도단장: 강인달, 대한부인회 위원장: 김노전, 민주국민당 위원장: 박승주 등이었다. 민주중보, 1949년 11월 12일자.

9) 탈당성명서 하천직(하동) 자유민보, 1949년 12월 11일자.

10) 1949년 12월엔 보련 가맹자가 도내 1200명에 이른다고 당시 신문은 밝히고 있다. 자유민보, 1949년 12월 3일자.

11) 자유민보, 1949년 11월 20일자.

12)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13)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14) 동아일보, 1949년 4월 23일자; 조선일보, 1949년 11월 10일자.

15) 실제, 국가기록원을 통한 조회결과, 재판기록은 있으나 수형기록은 누락, 분실, 멸실, 부존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수형기록은 있으나 재판기록이 누락, 분실된 경우도 있었다.

〈표 5〉 피해자 행형기록

연번	사건번호	희생자	번호	판결연월일	죄명	형량	형무소
2	다-10337호	박공수 (朴功璿)	제577호	1946.10.4.	포고령 제2호 위반	징역3년	마산형무소
3	다-7707호	이문달 (李文達)	제239호	1947.12.1.	포고령 제2호 위반 공고 제12호 위반	징역1월	마산형무소

이들은 좌익 활동 전력으로 출소 이후 자연스럽게 보도연맹에 편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자료가 다 남아 있지 않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보도연맹원으로 희생된 인원에 비해 실제 좌익활동으로 재판받은 경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나. 고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보도연맹 결성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성은 제2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한 곳이었다¹⁶⁾고 한다. 1949년 11월 정부의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적극적인 선전에 의해 자수자가 43명에 이르렀고¹⁷⁾ 1949년 12월 14일 대동극장에서 노기용 군수가 참석하고 윤 사찰주임의 사회 하에 보련고성지부결성선포대회가 열렸다.¹⁸⁾ 지도위원으로 김기활 고성경찰서장 및 노기용 고성군수 등이 임명되었고¹⁹⁾, 고성인민위원회 위원장 출신 오만수가 간사장을 맡으면서²⁰⁾ 보도연맹 고성지부는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²¹⁾되었다. 이듬해 1월 12일엔 보도연맹 간부들이 10일간 특별합숙훈련까지 받았다.²²⁾

개천면 보도연맹 서기를 맡았던 김○○는 “고성의 20~30대 대부분은 무조건 가입대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지서에서 거동수상자로 여긴 자를 데려다 무조건 자수하라고 협박하였고 자수한다고 하면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는 식이었다.”²³⁾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찰

16) 참고인 유순식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4. 9.).

17)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18)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19) 그밖에 천재환, 이상신 고성국민회장, 홍태주, 김갑성 마암면 지서주임이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20)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21)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2009. 6. 24.).

22) 부산일보, 1950년 1월 12일자.

2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4. 9.).

측 참고인에게서도 동일한 진술이 나타났다. 고성군 하일지서에 근무한 서○○은 “좌익혐의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함정수사를 많이 하였고 애매하게 잡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²⁴⁾고 진술하였다. 고성군 삼산지서에서 근무한 이○○은 “사적으로 죽이는 일이 많았고 경찰에선 우익이라고 방조하는 일이 잦았다”²⁵⁾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민들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성읍과 개천면 등은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²⁶⁾ 일회적으로 소집된 지역도 있었고 일부지역은 보도연맹 가입 이후 한번도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⁷⁾ 소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경찰서·지서에서 지시하면 구장·반장 혹은 보도연맹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을 소집²⁸⁾해왔다. 각 지서는 맹원 소집을 통해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제식 훈련과 강연 등을 통해 정신교육을 시켰으며 보도연맹원들은 소집에 불응할 경우 감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두해야 했다.²⁹⁾

2) 사건 경과

1950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 사이 고성경찰서는 마을 구장·반장 등을 통해 보도연맹원을 가까운 지서 내지 경찰서로 소집시켰다.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은 일상 교육으로 여기고 자진출두³⁰⁾하였다. 한편 피해자 오만수, 정계수 등 직접 경찰에 의해 연행된 보도연맹원³¹⁾도 있었다. 영오면 오서리 주민 최종림은 길가에 나가보니 몇 대의 트럭이 있었고 뒤에 사람들이 실려있었다고 진술³²⁾하였다. 이렇게 지서로 연행된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바로 고성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구금자들의 가족들은 밥을 지어 날랐으나 면회는 불허되었다.³³⁾

1950년 7월 25일경부터 고성경찰서는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8월 5일까지 8차례 걸쳐 사살했다. 먼저 7월 25일, 정계수 등 50명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에서 사살³⁴⁾되었다. 하일면 월흥리 타래고개³⁵⁾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 이상혁은 “1950년 음력

24)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 5. 14.).

2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14.).

26) 참고인 이종태 진술조서(2009. 6. 24.); 참고인 유순식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2009. 6. 24.).

27) 참고인 송상덕 진술조서(2009. 6. 25.).

2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4. 9.).

2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4. 9.).

30) 참고인 박상진 진술조서(2009. 6. 24.).

31) 신청인 오석완 진술조서(2008. 8. 27.); 신청인 정해룡 진술조서(2008. 11. 11.).

32) 그는 경찰이 동네 주민인 최광림(다-10335호)을 트럭에 싣고 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길가로 나선 것이었다. 당시 오서리에서 연행된 사람들로 “최대림, 최영갑, 최말림, 최광림, 최영만 등 10명 정도”라고 그는 말하였다. 참고인 최종림 진술조서(2009. 6. 25.).

33) 참고인 최삼순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이종태 진술조서(2009. 6. 24.).

6월중순경 타래고개 쪽에서 새벽에 총소리가 1시간 정도 났었고 후에 올라가보니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다”³⁶⁾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또 다른 현장 목격자인 춘암리 주민 김보연은 “소 먹이러 (타래고개)에 올라갔는데 보니 시체가 많이 쌓여 있었다.”³⁷⁾고 진술하였다.

7월 30일경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에서 오만수 등 60명이³⁸⁾ 개천면 원동골짜기에서 30여 명이 사살되었다. 보도연맹원이었던 참고인 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지서장과 몇몇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자신이 오니깐 서류를 감추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뒤에서 하는 소리가 “재는 빼줘라”고 했고 그날 붙들린 연맹원은 모두 줄에 묶여 야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다³⁹⁾고 진술했다. 당시 개천면 원동골짜기에 거주한 주민들 진술도 이와 동일하다. 원동골짜기로 올라가는 논가에는 보도연맹원들의 신발이 포착되었는데 안 올라가려고 하니깐 경찰 등이 몽둥이로 때려 올라가게 했다⁴⁰⁾고 진술했다.

8월 5일경엔 이문달 등 30명이 싸리재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⁴¹⁾

나. 남해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보도연맹 결성

남해군에서는 1949년 11월26일 102명이 탈당성명서와 함께⁴²⁾ 보도연맹이 결성되었는데 보도연맹 남해지부는 자수·전향자 36명을 포함하여⁴³⁾ 12월 9일 경남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300명이 모여 선포대회를 개최하였다.⁴⁴⁾

남해군의 보도연맹원 조직에는 앞서 자수·전향자도 상당 참여하였지만 강제 가입 등 문제점도 있었다. 이동면의 경우 연맹원이었던 김○원의 진술에 따르면 “국민축진회라는

34)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35) 타래고개는 행정지명상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일면 월흥리와 인접해 있다. 『고성군지』 참조.

36) 참고인 이상혁 진술조서(2009. 6. 25.).

37) 참고인 김보연 진술조서(2009. 6. 24.).

38) 참고인 김봉래 진술조서(2009. 6. 24.).

3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4. 9.).

40) 참고인 최종림 진술조서(2009. 6. 25.).

41)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42) 남해군의 전향자는 다음과 같다. ●삼동면 지족리 남로당: 임석락, 김옥근, 홍순형, 홍천일, 민청: 정극성, 이종해, 홍수표, 홍문표, 이상욱, 임중순, 홍덕주, 김석근, 최애봉, 임대춘 ●삼동면 영지리 남로당: 강일봉, 홍종묵, 정홍수, 이만주, 회정수, 홍인표, 민청: 최종혁, 최종안, 정용근, 홍순도, 김형순, 홍순영, 정재언, 최태주, 최태현, 김환문, 강봉준, 최병석 ●이동면 무림리 농조: 박주성, 하낙인 민청: 이갑수(이하 생략), 부산일보, 1950년 3월 19일자.

43)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44) 부산일보, 1949년 12월 13일자.

이승만 지지 단체에 반대하는 자를 모두 보도연맹에 몰아서 가입시켰다.”고 한다. 그는 “1950년 설 쇠고 나서 남해 이동국민학교에서 웅변대회를 열었는데 30~40여 명 가량이 왔다. 대부분이 대중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 연단에 나가 (우익사상을) 강하게 (표출한 자를) 제외하곤 모두 A급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진술했다.⁴⁵⁾ 설천면의 경우 대부분 학식이 높고 배운 사람들을 강제 가입시켰다⁴⁶⁾고 지역주민 정○섭은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보도연맹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경찰 지시에 의해 마을 구장이나 자수한 좌익단체 책임자들이 나서서 과정에서 가입된 것⁴⁷⁾으로 추정된다. 남해군에서도 보도연맹원이 외출할 경우 지서에 신고를 했고 정기적으로 이동초등학교나 공설회관에 소집되어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참고인 김○원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노래도 불렀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⁴⁸⁾ 진술했다.

2) 사건 경과

1950년 7월 24일 경 남해경찰서는 각 지서를 통해 보도연맹원 및 관련자를 검거토록 하였고 이에 각 지서는 구장 등을 통하여 연맹원들을 지서로 소집시켰다. 소환명령을 받은 보도연맹원들은 가까운 지서로 출두하였다.⁴⁹⁾ 대부분은 이런 소환이 자주 있었기에 의심없이 출두했다고 한다.⁵⁰⁾ 또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연맹원도 있었다.⁵¹⁾

각 지서에 구금된 연맹원은 바로 남해경찰서로 이송이 되었고 그중 A급으로 분류된 150여 명이 구금되었다.⁵²⁾ 피구금자 중 인맥과 돈 등을 통해 풀려난 사람들이 60여 명 정도였다. 연맹원 중 김○원은 남해경찰서 사찰계의 이영식 형사가 김○원의 친척인 보안계장에게 미리 언질을 하여 7만원을 주고 풀려났다고 진술했다.⁵³⁾ 또 좌익 활동가였던 이학용은 이승만과 같은 ‘이씨’라고 경찰서에서 풀어줘서 살아남았다고 한다.⁵⁴⁾ 이렇게

45) 참고인 김○원 진술조서(2009. 4. 29.).

46) 참고인 정○섭 진술조서(2009. 4. 30.).

47) 참고인 정주봉 진술조서(2009. 4. 29.).

48) 참고인 김○원 진술조서(2008. 8. 21.).

49) 신청인 류홍열 진술조서(2009. 2. 27.); 참고인 정주봉 진술조서(2009. 4. 29.).

50)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 났는데 우리를 불러들이는 게 심상치 않는데 하면서도 인민군들이 오면 보도연맹원을 먼저 죽이려고 한다던데 설마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겠지. 그러겠냐? 이러면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류홍열 진술조서(2009. 2. 27.).

51) 참고인 홍순규 진술조서(2009. 4. 29.).

52) 참고인 김○원 진술조서(2009. 4. 29.).

53) 그는 숙직때 보안계장에게 “처오촌이 죽는다. 이 시기에 잘 써서 해결해라”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참고인 김○원 진술조서(2009. 4. 29.).

54) 이학용 스스로 경찰서에서 나온 후 끌려간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참고인 정○섭 진술

해서 풀려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70~80명 정도였다.

남해경찰서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70~80명 중 33명은 7월 27일 트럭에 실려 남해군 이동면 복곡 저수지 근처 야산으로 끌려간 뒤 사살되었다.⁵⁵⁾ 마을 주민 홍순규의 진술에 따르면 7월 27일경 낮에 총소리가 났고 해질 무렵 6시경 복곡 야산에 올라가니 시신은 지네가 붙어 있었고 33명이 철사로 서로 묶여져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⁵⁶⁾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자료에서도 발견되는데 다음은 피해자 홍순영 (다-4088호)의 사실조사서 내용이다.

[그림1] 남해경찰서 사실조사서

事實調查書										
慶尙南道警察局 南海警察署							80. 9. 13.			
對 象 者 人 的 事 項	原籍									
	本籍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어지서 두미리								
	住所									
對 象 事 件 (附 送)	姓名	洪 順 永	姓名		生年月日	1928. 1. 14	職業		性別	男
	概要	본명은 1950. 7. 1 남해군 삼동면 이동면 복곡에서 취학된 뒤				罪名		官署		年月日
視 察	視 察 別	歸 入 日	削 除 日	視 察 別	歸 入 日	削 除 日	分類基準 1-1			
事 項	基 準	內 容 : 현재의 動向과 歸家에 對한 意 見 변동 본인은 본적지에서 농장에 종사하여 현재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거주지인 남해군 삼동면 어지서 두미리에서								
備 考										
意見 簽 長	丙	種 案	甲	原 案	甲	理 由	본인 당시 취학된 뒤			
審 議	地方審議委員會			道審議委員會			中央審議委員會			最 終 決 定 種 別
	年 月 日	1980. 9. 13	年 月 日		年 月 日		年 月 日			
	結 果	丙	種 案	甲	原 案	甲	種 案	甲	原 案	

조서(2009. 4. 30.).

55) 참고인 박형률 진술조서(2009. 4. 29.).

56) 참고인 홍순규 진술조서(2009. 4. 29.).

사실조사서에선 ‘6.25 좌익수 처형’ 명단⁵⁷⁾ 표지 뒤에 한 장마다 1명씩 성명, 본적, 대상 사건 내역에 ‘본명은 1950년 7.1 경남 남해군 이동면 북골에서 처형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유로는 ‘6.25 때 처형된 자임’으로 적혀 있어서 총살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은 30여 명 정도는 이튿날 강진만 앞바다 선상에서 사살된 후 바다에 유기되었다. 그들은 삼천포를 오가는 순항선에 구금되었고 밤중에 한명씩 호명되었다. 호명된 피구금자가 선상에 나오면 총을 쏘서 죽인 후 시체를 바다에 던졌다.⁵⁸⁾ 시신은 인근 설천면 해안가로 밀려들었고 심지어 대마도에서도 발견되었다.⁵⁹⁾ 이중 설천면 모천부락에서 피해자 류홍섭과 같이 소집된 하명석은 설천면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⁶⁰⁾되었다.

라.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보도연맹 결성

하동의 경우 1949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수전향자 134명⁶¹⁾을 중심으로 보도연맹이 결성 되었는데 결성식은 1949년 12월 4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있었다.⁶²⁾ 간사장은 전우영이 맡았다.⁶³⁾ 당시 참석한 정○화는 “1개면에서 10명 정도씩 책임자 급이 참석해서 아마도 12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고⁶⁴⁾ 진술하였다.

하동경찰서 소속 기동대원이었던 유○○은 “동네에서 생활이 곤란하고 무학인 자들이 가입했다.”⁶⁵⁾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가입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가입했고⁶⁶⁾ 다른 일부는 마을 유지들의 선동에 단체의 성격도 모른 채 가입원서에 도장을 찍었다⁶⁷⁾. 하동경찰서 횡천지서에 근무했던 김○○은 좌익활동가나 지역유지를

57) 사실조사서에 좌익처형자는 삼동면의 지족리 및 영지리 합 9명만 기록되어 있어 여타 면·리 상황은 알 수 없었다.

58) 당시 순항선을 운전하던 선장(사망)이 목격한 사실을 설천면 주민들에게 전언한 내용이다. 참고인 정○섭 진술조서(2009. 4. 30.).

59) 대마신문에선 죽은 지 1개월이 경과된 30~40대 남자 시신이 흉부가 굵은 새끼줄에 묶여 숨진 채 표류 중 이었는데 어선이 발견하고 신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기진, 앞의 책, 231면 재인용.

60) 참고인 하석준 진술조서(2009. 4. 29.).

61) 민주중보, 1949년 12월 3일자.

62) 경향신문, 1949년 12월 10일자.

63) 경향신문, 1949년 12월 10일자.

64) 참고인 정○화 진술조서(2009. 7. 14.).

65) 참고인 유○○ 진술조서(2009. 4. 8.).

66) 실제 참고인 이정기는 양보지서로 매일 호출되어 “도장 찍으면 고문 더 이상 안당하고 폭행도 없다”고 찍으라고 가입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참고인 이정기 진술조서(2009. 4. 7.).

앞세워 가입을 시켰다고 진술했다.⁶⁸⁾

일부 보도연맹원들은 “이승만이 만든 단체라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가입했다”라고 진술했다.⁶⁹⁾ 가맹자들의 상당수가 무지한 농민들이었다는 증언은 경찰 참고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인 김○○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좌·우가 뉘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무식자들이었다. 누가 좋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무조건 찍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⁷⁰⁾ 이상에서 볼 때 하동군의 보도연맹 가입자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좌익 활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단체의 성격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었다.

2) 사건 경과

1950년 7월 28일 인민군 6사단이⁷¹⁾ 하동군에 내려오기 한 달 전인 6월 말부터 하동경찰서는 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하동경찰서는 각 지서를 통해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지서는 구장이나 기동대를 통해 소집명령을 전달하였다. 당시 17살로 악양지서에서 경비를 섰던 참고인 정홍석은 자신도 (보도연맹원)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⁷²⁾

고성군과 남해군이 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을 하였으나 하동군의 경우 보도연맹원 검속은 그 이전 1950년 6월 중순부터 시작⁷³⁾ 되었다. 생존보도연맹원인 정○화는 “6월 중순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⁷⁴⁾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자수한 보도연맹원이 많았다는 점⁷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좌우익대립 투쟁⁷⁶⁾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번한 군경 합동수색⁷⁷⁾과 토벌전투도 있었고 민간인에 대한 과잉 수사로 이어졌다.⁷⁸⁾ 적량면 마을주민 박

67) 악양면 서리의 경우 권재우(사건번호 다-7692호)의 권유로 주민 9명 정도가 보도연맹가입서를 제출했다. 참고인 박○권 진술조서 (2009. 7. 15.).

68) 그는 “정권수(다-3235호), 0충오, 임상진, 송삼수(다-7695호) 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69) 실제로 1946년 1월 23일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의를 지지하는 대한독립촉성 하동군 청년연맹이 신용관을 위원장으로 조직되었고 12읍면에 지부를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5월 4일엔 이승만이 하동초등학교에서 3만명의 군민이 모인 가운데 직접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악양면지』, 254~255면.

7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71)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29일자.

72) “난 그래서 매계부락에 가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죽일려고 사람 불러오라고 하는 줄 알았다면 안했죠. 몰랐지.”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73)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74) 참고인 정○화 진술조서(2009. 7. 14.).

75) 각주 61)참조.

76) 함양, 산청, 밀양 등지에서 빨치산 부대 맹활동 해방일보, 1950년 7월 4일자; 7월 11일자.

단용은 검속 전에도 마을 주민 대부분은 대한청년단과 경찰에 의해 자주 지서나 구장집에 불려가서 “너 빨갱이 했제!”라고 추궁당하며 매를 맞았다⁷⁹⁾고 진술했다.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서에 연행, 소집된 후 하동경찰서로 다음 날 인계되었다.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에 경찰 친척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풀려나기도 하였는데 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이 강성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죽임을 당했다고 참고인 김○○은 진술⁸⁰⁾하였다. “특히 황천면 면서기로 송삼수가 있었는데 보도연맹에 가입이 돼있어서 당시 송가들이 많이 죽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하동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중 몇몇은 김치현에 의해⁸¹⁾ 풀려나기도 했다.

1950년 7월 11일경부터 말까지 하동경찰서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 등급에 따라 갑(甲)급은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후⁸²⁾ 수차례 지리산 근처 산청 넘어가는 고개 및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당시 진주형무소 형무관이었던 소○○은 “하동과 고성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과 좌익사범들을 간수가 포승을 죄게 한 후 현병이 데리고 나가서 지리산에서 모두 죽였다”⁸³⁾고 진술했다.

한편 하동경찰서 순경이었던 정○○은 외근 중 호출되어 분대원 9명과 같이 쓰리쿼터와 화물차로 보도연맹원 30~40명을 구레를 거쳐 남원경찰서에 인계했다⁸⁴⁾고 진술했는데 이는 군과 남원경찰서가 공조하여 하동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7) 이러한 합동수색작전으로 피해자 강갑수(사건번호 다-6170호)는 적량면 서리 야산에서 숲을 굽다가 연행되어 사살당했다. 참고인 이천석 진술조서(2009. 7. 15.).

78) 1960년 기사에도 하동군에서는 전쟁 전 공비소탕을 이유로 주민 700여 명이 학살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5사단 3연대 2대대 조재 중령이 인솔하는 공비소탕부대는 사리를 중심으로... (중략) 인접 하동군 옥종면, 청암면 등 15개 부락 청년 700여 명을 사리에 있는 200평의 군농회 창고에 수용 3개월에 걸쳐 한꺼번에 100명씩을 빨갱이라고 사리 뒷산 조씨네 묘지골짜기에 끌고 가 죽였다.” 부산일보, 1960년 5월 19일자.

79) 참고인 박단용 진술조서(2009. 7. 15.).

8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81) “김치현은 당시 현역군인으로 약양면 매계마을 출신이어서 하동경찰서에 방문하여 감금된 사람들 중 같은 동향 출신의 송맹숙 등 3명을 (석방토록 하여) 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참고인 유한상 진술조서(2009. 7. 16.);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약양면지』 752면.

82) 참고인 정○화 진술조서(2009. 7. 14.).

83) “전시라 좌익사범들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서 형무소 안에 있는 가수용소도 감당을 하지 못해 운동장에도 수용하였고 연행된 자들은 하루 있다가 현병이 다시 데리고 나간 경우도 많았다.” 참고인 소○○ 진술조서(2008. 1. 7.).

84)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12. 5.).

85) 위에 언급된 분대가 어디 소속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제3연대는 1950년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용안, 전주, 남원 등 호남지구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철수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보병 제7사단사령부, 『철성약사 1949.6.10~1969.12.31』, 1970.

잔여 보도연맹원 50여 명은 1950년 7월 24일경 밤, 하동 경찰에 의해 섬진강 건너 광양시 진월면 백운산 기슭 매티재에서 사살되었다.⁸⁶⁾ 당시 매티재 사살 현장에서 살아나온 박○권은 “하동경찰서의 사찰계 9~10명이 칼빈소총으로 50여 명을 처형했다”⁸⁷⁾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매티재에서의 즉결처형은 하동경찰 사찰계에서 주도했다”는 당시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한 정○○의 진술과도 일치⁸⁸⁾한다. 그밖에 전언에 의하면 진주에서 의령 가는 고개와 진양호 등 불상지에서 사살⁸⁹⁾되었다. 그러나 매티재를 제외하곤 목격자나 생환자가 없어 시신 수습이 불가능⁹⁰⁾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소집한 이후 사망까지의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였는지에 대해 전쟁 당시 하동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정○○은 보도연맹원 처형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적이 없다⁹¹⁾고 잘라 말했다.

2.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 수와 신원

고성·남해·하동군의 보도연맹 관련하여 희생자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성군의 전체 희생자 규모는 ① 1960년 고성군 희생자 조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220명⁹²⁾이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 ② 사살된 장소에서 시신을 수습한 중요 참고인의 진술에 의했을 때⁹³⁾도 각 장소마다 20~50구의 시신이 있었고 사살이 8차례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때 220여 명 이상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해군의 경우 1949년 신문자료에 따르면 자수전향자가 140명에 이르고 있었으나⁹⁴⁾ ① 시신 수습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⁹⁵⁾이나 ② 생존 보도연맹원의 진술⁹⁶⁾을 종합해 볼

86) 참고인 이정승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87) 참고인 박○권 진술조서(2009. 7. 15.).

88)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12. 5.).

89) 참고인 이정기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이순남 진술조서(2009. 4. 9.).

90) 이는 “처형을 밤에 많이 죽이고 장소도 모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죽였기 때문에 시체를 찾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경찰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그 정황이 나타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91) 참고인 정○○ 전화조사서(2009. 6. 4.).

92)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93) 참고인 유순식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이상혁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김보연 진술조서(2009. 6. 24.);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2009. 6. 24.); 참고인 최종림 진술조서(2009. 6.25.)

94) 부산일보, 1950년 3월 19일자.

제 6 권

때 전체 희생자 규모는 70~80여 명 정도⁹⁷⁾로 추산할 수 있다.

하동군은 전체 희생자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편차가 큰 데 1949년 12월 신문에서는 자수자가 130명이라고 나와 있고⁹⁸⁾ 연맹원 수가 3천명에 육박했다는 진술도 있으나⁹⁹⁾ ①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500여 명이 희생되었다¹⁰⁰⁾는 주장, ② 유치장에 연맹원들이 수차례 감금된 적이 있다는 경찰측 참고인들의 진술¹⁰¹⁾, ③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생존 보도연맹원의 300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진술¹⁰²⁾ 등으로 보아 3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및 목격자 유무, 시신수습 여부, 제적부 사망 기록¹⁰³⁾, 행형기록, 경찰서 기록 등을 희생자 확인기준으로 삼았다.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희생자 ‘확인’으로 하고 그 미만은 ‘추정’으로 하였다.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표 6>과 같다.

<표 6> 고성·남해·하동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명단

연번	희생자						희생자 확인 근거				확인 여부
	성명	사건 번호	성별	당시 연령	직업	사건 당시 주소지	참고인	제적등본	문서 104) 자료	시신 수습	
1	정계수 (丁桂水)	440	남	46	자영업	경남 고성군 고성읍 무학동 415번지	○105)		○106)	○	확인
2	강태주 (姜太周)	2249	남	46	농업	경남 고성군 영현면 봉발리 380번지	○107)	○ 7.31		○	확인
3	오만수 (吳萬壽)	4768	남	41	간사장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동 124번지	○108)		○109)	○	확인

95) 참고인 홍순규 진술조서(2009. 4. 29.).

96) 참고인 김○원 진술조서(2009. 4. 29.).

97) 사실조사서에 삼동면 처형자 수가 9명이라는 점을 남해군 10개 읍·면에 대입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사실조사서』, 남해경찰서, 1980.

98) 자유민보, 1949년 12월 6일자.

99) 김기진, 앞의 책, 220면.

100) 대략 각 면당 12~14리가 속해있고 각 리당 3개 부락이 있다고 가정할 때 1개 부락에서 2명씩 데리고 갔다고 했을 때 하동군이 12개면이면 5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101)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12. 5.);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9. 4. 19.).

102) 그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하동경찰서에 연행되어 구금된 사람들이 약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인 정○화 진술조서(2009. 7. 14.).

103) 제적부의 사망기록은 1950년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내에 사망한 경우로 희생자 제적부 사망기록을 통해 9명이 충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6> 희생자 명단 참조.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희생자						희생자 확인 근거				확인 여부
	성명	사건 번호	성별	당시 연령	직업	사건 당시 주소지	참고인	제적등본	문서 104) 자료	시신 수습	
4	박상호 (朴相灝)	5623	남	38	농업	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 지리 308번지	○110)			○	확인
5	유원식 (劉源植)	6092	남	30	농업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 성리 299번지	○111)	○ 7.4		○	확인
6	심재우 (沈載祐)	7208	남	23	농업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 지리 177번지	○112)			○	확인
7	이한문 (李漢文)	7209	남	25	농업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 평리 326번지	○113)			○	확인
8	이문달 (李文達)	7707	남	27	교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 내리 7번지	○114)	○ 7.5	○115)	○	확인
9	박건석 (朴健碩)	8729	남	26	신문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 기리 274번지	○116)			○	확인
10	송경만 (宋敬萬)	8984	남	29	농업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 서리 207번지	○117)	○ 6.10		○	확인
11	김동개 (金東介)	8985	남	29	농업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 성리 464번지	○118)			○	확인
12	이화봉 (李華鳳)	9807	남	25	농업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 평리 229번지	○119)				확인
13	박상호 (朴相孝)	10204	남	36	농업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 림리 694번지	○120)			○	확인
14	강대학 (姜大鶴)	10330	남	27	농업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 성리 326번지	○121)			○	확인
15	허우몽 (許又夢)	10334	남	26	농업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 산리 1301번지	○122)		○123)	○	확인
16	최광림 (崔光林)	10335	남	27	농업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 서리 172번지	○124)			○	확인
17	박공수 (朴功壽)	10337	남	39	공무원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 기리 277번지	○125)		○126)	○	확인
18	정추호 (鄭秋昊)	1013	남	28	농업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 벽리 610번지	○127)	○ 7.30.		○	확인
19	문정두 (文正斗)	1925	남	23	농업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 주리 1311	○128)				확인
20	김철한 (金鐵漢)	1926	남	18	학생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 주리 1619번지	○129)			○	확인
21	김재식 (金在植)	1927	남	19	농업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 주리 1639번지	○130)			○	확인

제 6 권

연 번	희생자						희생자 확인 근거				확인 여부
	성명	사건 번호	성별	당시 연령	직업	사건 당시 주소지	참고인	제적등본	문서 104) 자료	시신 수습	
22	박상윤 (朴祥潤)	1928	남	21	농업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 주리 1632번지	○131)			○	확인
23	김상윤 (金尙潤)	1929	남	24	농업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 주리 1287번지	○132)			○	확인
24	홍순영 (洪淳永)	4088	남	28	농업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 지리 1958번지	○133)		○134)	○	확인
25	류홍섭 (柳洪涉)	6970	남	29	농업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 항리 모천 973번지	○135)				확인
26	정창후 (鄭昌厚)	8181	남	29	농업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 항리 99번지	○136)			○	확인
27	권황석 (權黃石)	365	남	42	농업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 당리 167-2	○137)				확인
28	강용석 (姜榕碩)	916 7613	남	31	농업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 당리 1022번지	○138)				확인
29	한수성 (韓洙聲)	2645	남	34	농업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 방리 199-9번지	○139)	○ 7.15			확인
30	이용덕 (李龍德)	3209	남	20	농업	경남 하동군 황천면 학 리 516번지	○140)				확인
31	정한철 (鄭漢喆)	3234	남	21	농업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 치리 642	○141)				확인
32	정권수 (鄭權壽)	3235	남	40	농업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 치리 500번지	○142)				확인
33	김윤배 (金潤培)	3555	남	33	공무원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 서리 35번지	○143)				확인
34	김재곤 (金在坤)	3666	남	40	공무원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 당리 932번지	○144)				확인
35	박일봉 (朴一琫)	3847	남	36	공무원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 서리 821번지	○145)				확인
36	이필택 (李畢澤)	3984	남	24	농업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 곡리 705번지	○146)				확인
37	조갑제 (趙甲濟)	4022	남	26	교사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 계리 216번지의 1	○147)				확인
38	최규호 (崔圭皓)	4626	남	26	교사	경남 하동군 청암면 위 태리 574번지	○148)				확인
39	박학수 (朴學洙)	5685	남	41	부위원 149)장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 촌리 431	○150)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3)

연 번	희생자						희생자 확인 근거				확인 여부
	성명	사건 번호	성별	당시 연령	직업	사건 당시 주소지	참고인	제적등본	문서 104) 자료	시신 수습	
40	유철우 (柳哲宇)	6162	남	56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23번지	○151)				확인
41	유용덕 (柳龍德)	6162	남	29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23번지	○152)				확인
42	강응석 (姜應錫)	6163	남	46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19번지	○153)	○ 7.30.			확인
43	강대엽 (姜大曄)	6163	남	26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19번지	○154)	○ 7.30.			확인
44	강대운 (姜大允)	6164	남	27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71번지	○155)				확인
45	황용구 (黃龍球)	6165	남	32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53번지	○156)				확인
46	황용덕 (黃龍德)	6166	남	34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53번지	○157)				확인
47	최정섭 (崔丁燮)	6167	남	27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13번지	○158)				추정
48	강대익 (姜大益)	6169	남	21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84번지	○159)				확인
49	강갑수 (姜甲秀)	6170	남	26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40번지	○160)				확인
50	유정우 (柳正宇)	6171	남	59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36번지	○161)				확인
51	강원수 (姜元秀)	6173	남	29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138-1번지	○162)				추정
52	최홍열 (崔鴻烈) 163)	7306	남	26	농업	경남 하동군 북천면 서 황리 572번지	○164)				확인
53	김락환 (金洛煥)	7486	남	31	농업	경남 하동군 북천면 방 화리 142번지	○165)				확인
54	이상백 (李尙白)	7635	남	34	공무원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 이리 1010번지	○166)				확인
55	권재우 (權載于)	7692	남	26	농업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 동리 441-2번지	○167)	○ 7.30.			확인
56	송삼수 (宋三洙)	7695	남	43	공무원	경남 하동군 황천면 남 산리 697-1번지	○168)				확인
57	유홍권 (劉洪權)	8322	남	32	농업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58번지	○169)				확인

제 6 권

연 번	희생자						희생자 확인 근거				확인 여부
	성명	사건 번호	성별	당시 연령	직업	사건 당시 주소지	참고인	제적등본	문서 104) 자료	시신 수습	
58	유우윤 (劉又允)	8323	남	45	농업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24번지	○170)				확인
59	장을석 (張乙錫)	8411	남	45	농업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 곡리 331번지	○171)				확인
60	장두석 (張斗錫)	8415	남	32	농업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 곡리 341번지	○172)				확인
61	전중영 (全中榮)	9374	남	22	공무원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가 덕리 650번지	○173)				확인
62	구봉섭 (具鳳攝)	9509	남	24	농업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 정리 802-1번지	○174)				확인
63	여준규 (余俊奎)	9578	남	37	농업	경남 하동군 양보면 박 달리 509번지	○175)			○	확인
64	박동원 (朴東源)	9580	남	35	농업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68번지	○176)				확인
65	박경만 (朴敬萬)	9582	남	35	농업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 절리 840번지	○177)				확인
66	유기석 (劉起石)	10300	남	34	농업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 계리 771번지	○178)				확인
67	김종원 (金宗元)	미신청	남	43	사업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 내리 105번지	○179)			○	확인
68	김충완 (金忠完)	미신청	남	19	학생	경남 남해군 이동면 상 주리 1623번지	○180)			○	확인

104) 문서자료는 제적등본 외에 피해사실이 기록된 신문기사 및 행형 기록사항을 포함한다.

105) 참고인 강수식 진술조서(2009. 6. 24.).

106)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107) 참고인 박상진 진술조서(2009. 6. 24.).

108)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2009. 6. 24.).

109)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110) 참고인 김보연 진술조서(2009. 6. 24.).

111) 참고인 김00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강태봉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유순식 진술조서(2009. 4. 9.)

112) 참고인 심재화 진술조서(2009. 6. 25.).

113) 참고인 이관선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이두연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하두용 진술조서(2009. 6. 25.)

114) 참고인 송상덕 진술조서(2009. 6. 25.).

115)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행형기록 표 [5] 참조.

116) 참고인 박정례 면담보고서(2009. 3. 31.).

117) 참고인 송정남 진술조서(2009. 6. 25.).

-
- 11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4. 9.).
- 119) 참고인 이종태 진술조서(2009. 6. 24.).
- 120) 참고인 이상혁 진술조서(2009. 6. 25.).
- 121) 참고인 강태봉 진술조서(2009. 4. 9.).
- 122) 참고인 최삼순 진술조서(2009. 6. 25.).
- 123) 족보에는 경인년 (1950년) 음력 6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다.
- 124) 참고인 최종림 진술조서(2009. 6. 25.).
- 125) 참고인 박정례 면담보고서(2009. 3. 31.).
- 126) 행형기록 <표 5> 참조.
- 127) 참고인 정주봉 진술조서(2009. 4. 29.).
- 128) 참고인 남막래 진술조서(2009. 4. 30.).
- 129) 참고인 남막래 진술조서(2009. 4. 30.).
- 130) 참고인 남막래 진술조서(2009. 4. 30.).
- 131) 참고인 남막래 진술조서(2009. 4. 30.).
- 132) 참고인 강태호 진술조서(2009. 4. 30.).
- 133) 참고인 홍순규 진술조서(2009. 4. 29.).
- 134) 남해경찰서, 『사실조사서』, 1980.
- 135) 참고인 하석준 진술조서(2009. 4. 30.); 참고인 정0섭 진술조서(2009. 4. 30.).
- 136) 참고인 정두업 진술조서(2009. 4. 29.); 참고인 정봉기 전화조서(2009. 10. 29.).
- 137) 참고인 이정기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이순남 진술조서(2009. 4. 9.).
- 138) 참고인 이원구 진술조서(2009. 6. 23.).
- 139) 참고인 김필명 진술조서(2009. 7. 14.).
- 140) 참고인 정양옥 진술조서(2009. 6. 4.).
- 141) 참고인 정한용 진술조서(2009. 6. 4.).
- 14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정한용 진술조서(2009. 6. 4.).
- 143)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 144) 참고인 강복달 진술조서(2009. 6. 23.).
- 145)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6. 4.).
- 146) 참고인 이복택 진술조서(2009. 7. 20.).
- 147) 참고인 이홍규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정○화 진술조서(2009. 7. 14.).
- 148) 참고인 정평화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이홍규 진술조서(2009. 8. 13.); 참고인 정○화 진술조서(2009. 7. 14.).
- 149) 신청인 박정미 진술조서(2008. 5. 20.).
- 150) 참고인 김영환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김용주 진술조서(2009. 8. 12.).
- 151)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2)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3)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4)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5)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6)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7)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58) 참고인 강대섭 전화조서(2009. 7. 15.).
- 159)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60) 참고인 박단용 진술조서(2009. 7. 15.); 참고인 이천석 진술조서(2009. 7. 15.).
- 161) 참고인 서병춘 진술조서(2009. 7. 15.).
- 162) 참고인 강대섭 전화조서(2009. 7. 15.).

나. 희생자의 특징

이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68명이다. 희생자와 희생 추정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희생자의 75%가 20~30대이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77.9%가 농업에 종사했다. 공무원, 교사, 학생 등도 있었지만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다수는 농민으로 밝혀졌다.

〈표 7〉희생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희생자(명)	3명	32명	19명	12명	2명	68명
비율(%)	(4.4)	(47.0)	(27.9)	(17.6)	(2.9)	

〈표 8〉희생자의 학력별 분포

학력	무학	소졸	중학 이상	미상	계
희생자(명)	25명	16명	8명	19명	68명
비율(%)	(36.7)	(23.5)	(11.7)	(27.9)	

- 163) 사건 다-7306호는 최수열, 최홍열을 진실규명대상자로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최수열은 전쟁 전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고 보도연맹사건과 무관하여 현 희생자명단에서 제외되었다.
- 164) 참고인 김주 진술조서(2009. 8. 12.).
- 165) 참고인 김영환 진술조서(2009. 8. 12.); 참고인 김용주 진술조서(2009. 8. 12.).
- 166) 참고인 김도석 진술조서(2009. 6. 23.).
- 167) 참고인 박○권 진술조서(2009. 7. 15.);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8.).
- 168)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이동석 진술조서(2009. 6. 23.); 참고인 송근우 면담보고서(2009. 6. 23.).
- 169) 참고인 유한상 진술조서(2009. 7. 16.).
- 170) 참고인 유한상 진술조서(2009. 7. 16.); 참고인 유흥갑 진술조서(2009. 7. 16.).
- 171) 참고인 장호진 진술조서(2009. 7. 14.).
- 172) 참고인 장도용 진술조서(2009. 7. 14.).
- 173) 참고인 이남순 진술조서(2009. 6. 4.).
- 174) 참고인 전차중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이정승 진술조서(2009. 6. 4.).
- 175) 참고인 이태임 진술조서(2009. 6. 23.).
- 176) 참고인 유한상 진술조서(2009. 7. 16.).
- 177) 참고인 정명관 진술조서(2009. 7. 15.).
- 178) 참고인 유한상 진술조서(2009. 7. 16.).
- 179)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2009. 6. 24.); 참고인 최재연 진술조서(2009. 7. 22.).
- 180) 참고인 남막래 진술조서(2009. 4. 30.).

〈표 9〉희생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	농업	공무원	교사	학생	자영업	보도연맹 간부	기타	계
희생자(명)	53명	7명	3명	2명	1명	2명	1명	68명
비율(%)	(77.9%)	(10.2)	(4.4)	(2.9)	(1.4)	(2.9)	(1.4)	

다음은 각 군별 희생자 중 특이 사례이다.

1) 고성군

희생자 이한문(사건번호 다-7209호)은 구장이 소쿠리와 팽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희생되었다. 당시 집에선 도로 포장 부역을 하러 나간 줄 알았다¹⁸¹⁾고 한다. 희생자 강태주(사건번호 다-2249호)는 영현면 면장¹⁸²⁾으로 개천면 원동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

2) 남해군

희생자 김철한(사건번호 다-1926호, 당시 18살, 학생)은 경찰이 좌익검거를 위해 상주면 금전부락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동무”란 호칭을 썼다고 하여 연행¹⁸³⁾되었다. 희생자 홍순영(사건번호 다-4088호)은 홍순채라는 좌익운동가와 한자 이름이 비슷해 대한청년단원에게 연행되어 사살되었다.¹⁸⁴⁾

3) 하동군

하동군은 공무원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희생자 김재곤(사건번호 다-3666호)은 전직 양보지서장¹⁸⁵⁾이었고 희생자 김윤배(사건번호 다-3555호), 박일봉(사건번호 다-3847호)

181) 참고인 이관선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이두연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하두용 진술조서(2009. 6. 25.).

182) 참고인 박상진 진술조서(2009. 6. 24.).

183) 금전마을에서 최고령자인 남막래는 “동무란 말은 당시엔 흔히 썼는데… 그 말을 썼다고 금전부락에서 제일 어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잡아갔어요.”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남막래 진술조서(2009. 4. 30.).

184) 참고인들의 주장은 장○는 처가에 좌익운동가 홍순채(洪淳采)를 보호하기 위해 한자가 비슷한 홍순영(洪淳永)을 경찰에 지목하였고 이에 홍순영은 사살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집안 대립이 격화되자 장○는 3개월 후 홍순영의 모친도 살해하였다. 참고인 홍순규 진술조서(2009. 4. 29.); 참고인 홍권표 진술조서(2009. 4. 29.).

185) 참고인 강복달 진술조서(2009. 6. 23.); 신청인 김종화 진술조서(2008. 4. 17.); 한편 하동경찰서에 위 대상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멸실로 확인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동경찰서, 『경찰

과 이상백은 각각 악양면, 진교면 면서기¹⁸⁶⁾로 재직 중¹⁸⁷⁾이었다. 희생자 송삼수(사건번호 다-7695호)는 횡천면 산업계장이었다.

다. 가해 책임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경찰국에 치안국장 장석윤의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을 통해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언통신문을 전국 도경찰국에 보냈다.¹⁸⁸⁾ 이어 6월 29일 ‘보도연맹원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의 건」 및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했다. 이어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잇 따라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¹⁸⁹⁾ 각 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당시 고성경찰서 하일지서에 근무한 서○○은 보도연맹원을 사찰계에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¹⁹⁰⁾ 삼산지서 의용경찰이었던 이○○는 의용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수색·연행해 오면 경찰서에서 보도연맹원을 처리했다고 하였다.¹⁹¹⁾ 또한 G-2와 CIC도 개입했다고 진술하였다.¹⁹²⁾ 1960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집단사살의 주동적 역할을 한 자로 당시 고성경찰서장 손술조¹⁹³⁾ 경감 및 사찰주임 윤환수 경위¹⁹⁴⁾, 해병대 G-2 최석주¹⁹⁵⁾, 사찰계를

인사기록카드 송부요청결과 통보」, 문서번호 1680039-000638.

186) 참고인 김도석 진술조서(2009. 6. 23.).

187) 참고인 정홍석 진술조서(2009. 4. 7.).

188)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189)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 8. 6):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同件에 관하여는 據 6월 25일 치안국장 통첩(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통첩(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통첩(불순분자 구속 처리의 건), 7월 11일 치안국장 통첩(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0)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 5. 14.).

19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14.).

19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4.).

193) 재임기간 : 1950.05.10~1950.10.20. 경남지방경찰청, 「관서장명부」 참조.

194) ‘윤환수’는 고성보편결성대회 때 사회를 보았을 정도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9일자.

지목하고 있다.¹⁹⁶⁾ 그밖에 경찰 참고인 대부분이 그와 동일한 진술¹⁹⁷⁾을 하였다.

2) 남해군

남해군은 군의 개입 없이 남해경찰서¹⁹⁸⁾ 사찰계가 주도하였다. 남해경찰서 사찰계는 직접 검거에 나서거나 대한청년단이나 구장 등을 통해 보도연맹원을 소집했다. 보도연맹원들을 복곡 저수지 및 강진만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 참고인들 진술로 미루어보아 이영식 사찰계장과 최학수 형사가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하동군

하동군의 경우 보도연맹원들의 체포·연행·구금은 하동경찰이 담당하였고 예비검속된 사람들에게 대한 살해는 군 헌병¹⁹⁹⁾과 하동경찰서²⁰⁰⁾ 사찰계에 의해 이루어졌다.²⁰¹⁾ 육군 제7사단 제3연대도 하동군에 전쟁 전부터 주둔하여 보도연맹 살해에도 관여²⁰²⁾한 것으로 보인다.²⁰³⁾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2대대 정보참모 김○○대위²⁰⁴⁾가 민간인 살해에 주도적으로 가담²⁰⁵⁾하였다.

195) '최석주'에 대한 인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대상자의 자료가 없었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 결과 회신』, 2009. 9. 9. 문서번호 1680039-000801.

196) 마산일보, 1960년 6월 20일자.

19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박○○ 전화조사서(2009. 6. 4.).

198) 당시 남해경찰서장은 '김영준'이었다. 재임기간 : 1950.5.11. ~ 1950.9.27. 경남지방경찰청, 『관서장명부』 참조.

199) 참고인 소○○ 진술조서(2009. 1. 7.).

200) 당시 하동경찰서장은 '채이석'이었다. 재임기간 : 1949.7.20. ~ 1950.8.20. 경남지방경찰청, 『관서장명부』 참조.

201) 당시 하동경찰 순경이었던 이○○은 "후퇴할 적에 살려준다고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정보과에서 썩 다 잡아다가, 아이고 말도 못해요" 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이○○ 면담조서(2009. 4. 15.).

202) 국제신보, 1960년 6월 21일자; 참고인 이○○ 면담조서(2009. 4. 15.);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12. 5.); 참고인 정○○ 면담조서(2009. 4. 19.).

203) 제3연대는 1950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함양, 산청, 진주 등지의 낙동강 서부지구 전투에 참여하였다. 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약사 1949.6.10-1969.12.31』, 1970.

204) 당시 마을주민들은 그를 "김사권" 또는 "김시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사권"명으로 인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병적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다. 육군본부, 『군복무 기록 등 인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2009. 9. 10. 문서번호 1680039-000811. 한편 "김시곤"은 자력표 상 3연대 정보반으로 1950년 4월 21일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육군본부, 『군복무 기록 등 인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2009. 9. 21. 문서번호 1680042-000902.

205) 그의 약명은 1960년대 신문기사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김사권 대위를 부락민들이 '염라대왕'이라고 했고 죄상 유무를 캐지 않고 죽였다"고 하고 "주민들이 연행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뇌물을 바쳤다"고 게재되어 있다. 부산일보, 1960년 5월 19일자; 국제신보, 1960년 6월 21일자.

제 6 권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경상남도 경찰국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를 고성·남해·하동 각 경찰서에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고성·남해·하동경찰서는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²⁰⁶⁾ 당시 경찰로 재직 중이었던 참고인 김○○은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신상 및 동향 파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사찰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였다고 진술²⁰⁷⁾ 했다.

각 지역 경찰 참고인들은 평소 보도연맹원 관리,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과 희생 장소로 이송까지 경찰이 개입돼 있다고 시인²⁰⁸⁾ 하였으나 직접 살해 가담 여부에 대해선 부인하였다.²⁰⁹⁾ 그러나 경찰이 보도연맹원 중 간부들을 먼저 죽이고 다음에 도장 찍은 보도연맹원을 처형하였다는 진술과²¹⁰⁾ 사찰계가 주도했다²¹¹⁾는 진술에 비추어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원들이 살해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보도연맹 관련 가해책임에 대해 경찰측 참고인 정○○은 보도연맹 관련 업무는 사찰계에서 극비로 처리하였고 처형지시가 경남도경찰국에서 내려왔다고²¹²⁾ 하였고 김○○도 경찰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왔다²¹³⁾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가해책임은 경상남도 경찰국 소속 고성·남해·하동 각 경찰서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나 불법 사살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은 전시 하에서 상부기관인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군경을 관리, 감독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 사명으로 하는 국가에게 최종 책임이 귀속된다.

III.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신청인 65명, 미신청 유족 2명의 진술 및 목격자, 참고인 진술, 관련자료 등을 통해

206)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20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4.).

208) 참고인 안○○ 진술조서(2009. 6. 4.).

20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12. 5.).

21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4.).

211)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9. 5. 14.).

212) 참고인 정○○ 전화조사서(2009. 6. 4.).

2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4.).

조사한 결과, 고성·하동·남해지역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고성·하동·남해경찰서 경찰서에 소집·구금되었다가, 1950년 6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고성 하일면 타래고개 및 마암면 싸리재, 개천면 원동골짜기, 남해 북곡저수지 근처, 강진만 해상 그리고 광양시 매티재 외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나. 조사결과, 신청사건 중 희생자로 '확인'된 자는 모두 64명으로 정계수(丁桂水, 다-440호), 강태주(姜太周, 다-2249호), 오만수(吳萬壽, 다-4768호), 박상호(朴相灝, 다-5623호), 유원식(劉源植, 다-6092호), 이한문(李漢文, 다-7209호), 이문달(李文達, 다-7707호), 심재우(沈載祐, 다-7208호), 박건석(朴健碩, 다-8729호), 송경만(宋敬萬, 다-8984호), 김동개(金東介, 다-8985호), 이화봉(李華鳳, 다-9807호), 박상효(朴相孝, 다-10204호), 강대학(姜大鶴, 다-10330호), 허우몽(許又夢, 다-10334호), 최광림(崔光林, 다-10335호), 박공수(朴功壽, 다-10337호), 정추호(鄭秋昊, 다-1013호), 문정두(文正斗, 다-1925호), 김철한(金鐵漢, 다-1926호), 김재식(金在植, 다-1927호), 박상윤(朴祥潤, 다-1928호), 김상운(金尙閏, 다-1929호), 홍순영(洪淳永, 다-4088호), 류홍섭(柳洪涉, 다-6970호), 정창후(鄭昌厚, 다-8181호), 권황석(權黃石, 다-365호), 강용석(姜榕碩, 다-916호, 다-7613호), 한수성(韓洙聲, 다-2645호), 이용덕(李龍德, 다-3209호), 정한철(鄭漢喆, 다-3234호), 정권수(鄭權壽, 다-3235호), 김윤배(金潤培, 다-3555호), 김재곤(金在坤, 다-3666호), 박일봉(朴一琫, 다-3847호), 이필택(李畢澤, 다-3984호), 조갑제(趙甲濟, 다-4022호), 최규호(崔圭皓, 다-4626호), 박학수(朴學洙, 다-5685호), 유철우(柳哲宇, 다-6162호), 유용덕(柳龍德, 다-6162호), 강응석(姜應錫, 다-6163호), 강대엽(姜大曄, 다-6163호), 강대윤(姜大允, 다-6164호), 황용구(黃龍球, 다-6165호), 황용덕(黃龍德, 다-6166호), 강대익(姜大益, 다-6169호), 강갑수(姜甲秀, 다-6170호), 유정우(柳正宇, 다-6171호), 최홍열(崔鴻烈, 다-7306호), 김락환(金洛煥, 다-7486호), 이상백(李尙白, 다-7635호), 권재우(權載于, 다-7692호), 송삼수(宋三洙, 다-7695호), 유흥권(劉洪權, 다-8322호), 유우윤(劉又允, 다-8323호), 장을석(張乙錫, 다-8411호), 장두석(張斗錫, 다-8415호), 전중영(全中榮, 다-9374호), 구봉섭(具鳳攝, 다-9509호), 여준규(余俊奎, 다-9578호), 박동원(朴東源, 다-9580호), 박경만(朴敬萬, 다-9582호), 유기석(劉起石, 다-10300호)이다.

신청사건 중 희생자로 '추정'된 자는 최정섭(崔丁燮, 다-6167호), 강원수(姜元秀, 다-6173호) 2명이다.

미신청사건 중 희생자로 '확인'된 자는 김종원(金宗元), 김충완(金忠完) 2명이다.

제 6 권

다. 가해자는 경남경찰국 소속의 고성·남해·하동경찰서 경찰과, 육군 제7사단 제 3연대 및 의용경찰대로 확인되었다. 가해 군경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전언통신문을 하달 받아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를 구금·사살하였다.

라. 당시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간첩죄나 이적죄,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 재판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제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게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진술이나 문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마. 이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반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전시하의 민간인을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한 채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살아오게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위령·추모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희생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

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해안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 사망장소가 오기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을 용이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별도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보완·추가하여 관련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지' 등에 기재하여 지역 공동체가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며 특히, 군과 경찰 등 해당부처는 '연혁사', '부대사' 등의 기록물에 사건 내용을 신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하여 전시에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초·중·고·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첨]

1)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

타래고개는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에서 하이면 월흥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성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20~30여 명이 집단 사살된 장소이다. 타래고개(峙)라 일컫는데 ‘땅고개’로도 일컬어졌다.



2) 고성군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는 1950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70여 명의 고성군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자들이 사살된 장소이다.



3)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원동골짜기

고성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 20~30명이 사살된 장소로 개천면 북평리 원동골짜기는 연화산맥과 안산(배바위산)이 동남쪽으로 뻗어내리고 있고 월곡에서 원류하는 압실 개천이 앞에 있다.



4) 남해군 이동면 복곡저수지 근처 야산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 위치한 복곡저수지 근처 산기슭이다. 지금은 19번 국도가 신설되어 있는데 보리암이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남해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33명이 사살된 장소이다.



5) 남해군 미조면 강진만

경남 남해군 미조면 강진만 해상이다. 보도연맹원 30~40명을 순항선에 실어 해상에서 총을 쏘 바다에 시체를 유기한 장소이다.



6)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백운산 끝자락에 위치한 일명 매티재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으로 전쟁 당시엔 민둥산에 가까웠다.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2번 국도가 횡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하동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50~60여 명이 사살된 장소이다.

